



No.369 | korea.kr/gonggam

2016. 08. 29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G20·라오스 방문

기획특집 국민의 삶 보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가계부채 급증 브레이크 건다

4회 연속 톱10... 아듀! 리우올림픽

길 따라 음식 따라 가을은 맛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철도보안검색

2016년 8월 23일 부터 시작됩니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철도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열차 반입금지 물품 (철도안전법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화약류



방사성·전염성
독성 물질



인화성 물질



총포·도검류

📍 장소 : 서울 · 오송 · 부산 · 익산역 및 KTX 열차 내

📄 방법 :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특정
무작위(Random), 이동식(Spot) 보안검색 실시

“보안검색을 거부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50조에 따라 열차 승차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희망



박태환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경기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한 지 어느덧 2년 8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정부 협업 모범 사례로 빈번히 언급되었고, 단기간에 우리나라 고용·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논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정부3.0의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각 기관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 기관 간 연계와 협업이 잘 이뤄지지 않아 정책적으로도 비효율적인 면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문을 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참여기관들이 각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해당 기관에 바로 연계해줌으로써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정책 효율성이 증가하는 등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원스톱 고용·복지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과 복지를 이어주는 ‘희망브리지’ 구실을 하고 있다. 참여기관 간 사례를 합동 관리해 이용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맞춘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까지 지원하고 있다. 복지 수급 대상자 등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구직 욕구 조사를 실시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립 경로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협업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참여기관들의 운영위원회, 실무자회의, 워크숍 및 연계 정착을 위한 사례 관리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방문자수, 취업 실적 등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여기에 기관들의 매끄러운 연계 활동으로 고객 만족도도 높아졌다.

이런 외형상 지표도 중요하지만 여러 기관이 협업해 고용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고용·복지 문

“여러 기관이 협업해 고용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고용·복지 문제뿐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 내놓은 종합 처방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을 도와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발품을 팔아가며 다른 기관을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답이다.”

제뿐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까지 고려해 내놓은 종합 처방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빈곤 탈출을 도와 삶에 희망을 심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발품을 팔아가며 다른 기관을 찾아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답이다.

얼마 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남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40대 여성가장 A 씨는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받는 것은 물론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좀 더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상담을 마친 A 씨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여러 기관이 노력해줄 거라곤 정말 생각지 못했다”며 “그동안 정부와 공무원에게 막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편견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A 씨의 말이 긴 여운으로 남았다. 6



CONTENTS

- 01 이 주의 공감
- 04 독자마당
- 06 공감 사진관

이슈정책

- 08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라오스 방문과 G20·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정상외교 통한 경제·안보 우호적 환경 조성
- 11 | 기고 |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국제공조 강화 기대
- 12 한·미 을지프리트가디언 연습으로 북핵 도발 철저 대비
박 대통령 전방 군단 방문 “북한 도발 땀 강력하게 응징”
- 14 | 기고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변화 없으면 탈북 행렬 이어진다
- 15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1억 원·사망자 2000만 원 지급

기획특집 | 삶을 보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7 고용·복지·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삶을 보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18 ‘일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 꿈이 영글다
- 20 30대 싱글맘의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기
“취업 앞선부터 생계 지원까지 한 번에 OK!”
- 22 중장년 취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해 생애 첫 취업한 김정식 씨
“우리 가족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었어요”



2016. 08. 29
No.369 | 통권 470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펜싱 에페 박상영 선수가 리우올림픽 결승전에서 주문을 걸듯 혼자 되뇌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종합 8위를 차지한 대한민국 선수들은 자신감과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4년간의 노력에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뉴시스, 뉴시스,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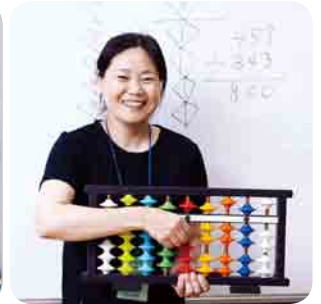
발행일 2016. 08. 2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중덕 제작기획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044-203-3014)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삼화인쇄
구독문의 02-2625-3294 shgwak@korea.kr
구독 주소변경 신청 수신자부담 전화 080-851-0183



18



38



42

- 24 청년 취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움으로 한식조리사 도전 이현민 씨
“당당히 취업해 가족에게 행복 주고 싶어요”
- 25 여성 취업 | 김포센터 지원받으며 간호조무사 꿈꾸는 윤민정 씨
“위기 때마다 받은 도움… 꼭 취업하겠습니다”
- 26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사람들
남다른 사명감… ‘살맛 나는 세상’ 도우미

정책 일반

- 30 주택 공급 조절·집단대출 관리 강화
가계부채 급증 브레이크 건다
- 32 | 기고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청탁금지법, 국민이 행복한 사회의 출발점
- 3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공무원 채용 등 적극 활용
- 35 난임 시술 지원 9월 전 계층 확대… 내년 출생아 2만 명 늘린다

특별기획 | 아듀 리우올림픽

- 36 팀 코리아 ‘유종의 미’
종합 8위… 도전은 아름다웠다
- 38 올림픽 정신 보여준 그대가 진정한 영웅
- 40 메달보다 ‘땀과 열정’… 우린 리우에서 감동을 보았다

문화, 교양, 인물 & 라이프

- 42 주산강사로 12년 만에 외출, 두 아이 엄마 김성훈 씨
“용기는 더하고, 두려움은 빼고… 주산같이 아이들 가르쳐요”

- 44 주택임대관리사·드론조종사·닥터세프…
미래 유망 신직업 선정해 카운니다
- 46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괜찮니 캠페인’ 추진
“괜찮니?”
삶을 이어주는 그 한마디
- 48 ‘기록인의 올림픽’ 2016 세계기록총회 9월 5~10일 서울 개최
디지털 시대 ‘기록 한류’ 새 지평 연다
- 50 길 따라 음식 따라
가을은 맛있다
- 54 내 손으로 꾸미는 사무실 책상 ‘데스크테리어’
열심히 일하는 당신도 ‘사무실 힐링’
- 56 | 연재 | 정책의 뿌리를 찾아서-예산정책
중화학공업에 뿌린 예산 근대화 열매로
이젠 복지에 눈돌려 미래 대비
- 58 9월 1일부터 대장금과 함께 ‘경복궁 별빛야행’
궁궐의 일상 체험, 뜻깊은 시간 여행
- 59 만성질환, 9월부터 동네의원이 통합 관리
- 60 고온다습 기후 농산물 관리법
농산물 곰팡이 독소 주의!
- 61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유해 논란
알갱이 치약보다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
- 62 생활과학 이야기
- 63 홀로공감
- 64 소통과 공감

알림 게시판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인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누리집 www.korea.kr/gonggam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대한민국 무인도서 이름 지어주기 '호호해요' 공모전

공모 내용 19개 무인도서 이름 지어주기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9월 30일까지

응모 방법 '호호해요' 공모전 누리집(www.hhhy.kr)에 접속해 19개 무인도서 정보를 열람한 뒤 이름을 작성해 올림(다수 공모 가능)

수상 혜택 대상(1명) 200만 원 및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여 등

주 최 해양수산부

문의 hohohaeyo@daum.net

작은 결혼 공모전, 나의 작은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모 내용 ① 나의 작은 결혼 계획서 ② 실제 실행한 작은 결혼 이야기

③ 작은 결혼식 장소(공용 시설물) 찾기

응모 자격 제한 없음

접수 기간 9월 25일까지

응모방법 작은결혼정보센터 누리집 내 공모전 페이지(smallwedding.or.kr)에서 내려받은 기획서를 작성한 뒤 올림

수상 혜택 대상(1명)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상장 수여 등

주 최 여성가족부

문의 공모전 운영 사무국(02-320-8886)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 8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삼세판 퀴즈

367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에페 02 AA 03 직무 관련성

당첨자

윤서현(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최현정(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정승혜(서울 양천구 신정로)

김인수(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이준민(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 01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광역형 ○○○○플러스센터인 인천○○○○플러스센터가 7월 22일 문을 열었다. 이곳엔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 참여기관이 입주해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 02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한·미 연합 ○○○○○○○○(UFG) 연습 중인 전방 군단을 전격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경고했다.
- 03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369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 8일 오전까지 이메일(shgwak@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0119)

공감 카툰



원스톱으로 당신의 삶을 지원합니다.

편집실에서

8월 20일 토요일 오전, 일어나서 천천히 아침 먹을 준비를 하면서 TV를 켜는데, ‘우와~!’ 익숙한 얼굴이 방송에 나오고 있었다. 여자 태권도, 오혜리 선수였다! 금메달이 걸린 결승전이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식사 준비고 뭐고, 곧바로 TV 앞에 앉았다. 올림픽 출전을 한 달여 앞두고 오혜리 선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물여덟 살 다소 낮은 나이에 올림픽에 처음 출전하면서 “저에게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라고 기뻐하던 모습이 머릿속에 스쳐지나갔다.

사실 태권도 종목은 인기 남자 선수인 이대훈과 김태훈 선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어, 늦깎이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오혜리 선수는 언론의 주목을 그다지 받지 못했다. 누군가는 “첫 도전인데 메달 따겠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니까 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주위 시선에 오혜리 선수는 “저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경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꼭 이겨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다부진 각오를 보여줬다. 오 선수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음에도 그녀가 금메달을 따낼 거라고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오혜리 선수가 여자 태권도 세계랭킹 1위 선수와 숨 막히는 맞대결을 펼치며 당당히 세계 1위에 등극했을 때, 왠지 모를 미안함과 감격스러움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연이은 부상과 컨디션 난조로 두 번이나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하면서 포기할까 생각도 했던 그녀다. 하지만 오혜리 선수는 “태권도가 너무 좋아 멈출 수가 없었다”면서 결국 세 번째 도전 만에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고, 금메달까지 거머쥔 수 있었다.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무대잖아요. 제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싶어요”라고 말하던 오 선수의 멋진 도전과 금빛 승리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낸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





“군인 아저씨, 방탄헬멧이 너무 커요”

2016 을지훈련과 연계해 8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군 장비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어린이집 원아들이 방탄헬멧을 직접 써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1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난 양국 정상. 2 박근혜 대통령은 9월 7~8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기념 촬영 모습. 3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 러시아·라오스 방문과 G20·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정상외교 통한 경제·안보 우호적 환경 조성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방문하는 7박 8일 일정의 순방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9월 2~3일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러시아 실무 방문에 이어, 4~5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8~9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8월 22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순방은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안보적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국제 환경을 탓하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 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3일에 있을 전체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한다. 동방경

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포럼이다. 제1차 동방경제포럼은 지난해 9월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포럼은 ‘러시아의 극동 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능동적·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아나갈 것”

박 대통령,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러시아 방문

박 대통령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방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은 취임 이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러시아 방문이자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최근 한·러 간 정상회담은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 21) 계기로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관계 발전방안,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의견을 교환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를 구체화하는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이 논의돼왔다. ‘나진·하산 물류 사업’이란,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러·북 합작 사업에 포스코와 현대상선 등 우리 기업이 지분 및 운영권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 사업은 북한의 잇단 핵 도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러 양국의 경험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다양한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 이어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먼저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함께 올해 정상회의의 주제인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정책 공조 및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

척(세계 경제,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반부패, 에너지, 국제금융체제, 금융개혁, 국제조세, 녹색금융), 국제 무역·투자(무역, 투자), 포용적·연계적 개발(업무오찬 : 개발, 고용, 에너지, 인프라 연계성, 기후재원), 기타(반테러·기후변화 등) 등 4개 세션과 업무오찬 등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G20 정상회의, 정책 공조 및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하기 위한 방안 협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세계 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9월 7~8일 박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와 역내 국가들 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상대로(2015년 교역량 약 1200억 달러),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빚어진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의 대외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의 동아시아 공동체 견인차 역할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8일에 열릴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EAS의 협력 현황,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G20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통령, 1995년 양국 재수교 이래 최초 라오스 방문

양국 간 실질 협력 가속화하는 계기 될 것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9월 8~9일 라오스 공식 방문이다. 분냥 보라쉴라 라오스 대통령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9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라오스는 7월 15일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 ASEM 참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통론 시슬리트 라오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방협력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양국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라오스에 개설하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를 통해 라오스에 필요한 농업기술이 성공적으로 지원돼 라오스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 라오스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성명 도출에 기여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아세안 차원에서 좀 더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1995년 양국 재수교 이래 최초의 우리 대통령 양자 공식 방문으로서, 올해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라오스 동포 대표들을 접견해 동포사회를 격려하고,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G**

러시아 현황

- 인구 : 1억4247만 명
- 동포 현황 : 한국 교민 5400명
- 1인당 GDP(2015) : 8447달러
- 교역 규모(2015) : 5335억 달러
 - 수출 : 3395억 달러
 - 수입 : 1940억 달러
-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2015년 한국 기준)
 - 160억 달러(수출 46억9000만 달러 / 수입 : 113억1000만 달러)
- 주요 자원 : 철광석, 석탄, 원유, 비철금속, 가스 등
-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 1990. 9. 30
- 대러 투자(2015년 12월 누계, 신고액 기준) : 32억 달러



자료 : 외교부

라오스 현황

- 인구 : 650만 명(2015년)
- 동포 현황 : 한국 교민 약 2000명(2015년)
- 1인당 GDP : 1903달러
- 교역 규모 : 81억1000만 달러
 - 수출 : 34억3000만 달러(광물, 전력, 목재 등)
 - 수입 : 46억8000만 달러(전력기자재, 휘발유 및 가스, 철강제품 등)
- 주요 산업 : 광업(구리 등), 수력발전, 농업, 관광, 목재, 수공업 등
- 우리나라와 외교관계 수립 : 1974. 6. 22
- 수출입 현황 및 주요 품목(2015년, 한국무역협회)
 - 교역 규모 : 1억9800만 달러
 - 수출 : 1억7000만 달러 / 수입 : 2800만 달러



자료 : 외교부

| 기고 | **고재남** 국립외교원 교수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 국제공조 강화 기대

●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으로 동북아 외교 지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 중국,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경험 확대를 추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초연설을 하며,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총리로 취임한 이후 대러관계 개선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아베 총리도 이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의 대러 외교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러관계는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푸틴 정부의 신통방정책이 상호 결합돼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할 것으로 기대됐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식 제안한 직후인 2013년 11월 중순 서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킬 수 있는 외교·안보·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합의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에 대한 군사·경제적 지원은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를 유발했고, 이는 한·러 협력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대러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대러 제재는 불가피하게 한·러 양국이 2013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고위급 인사 교류와 협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수교 25주년을 기해 양국 간 협력관계의 불씨를 살리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물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러 협력을 확대해왔다. 이번 한·러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대북 제재 지속 및 사드 배치에 대한 이해 제고와 더불어 정체 상태에 있는 극동지역에서의 한·러 경험 프로젝트를 재가동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중국보다는 강도가 약한 편이며,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러·중·북의 반(反)사드 연대를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9월 4~5일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이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들 주제를 위한 G20 차원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관심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시진핑 주석의 입장 표명이다.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양국 간 심각한 갈등 현안으로 떠오른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박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다자외교의 장을 활용해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경험 확대를 추진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해 제고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임기 말인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라오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9월 7~8일)와 라오스 공식 방문(9월 8~9일)은 아세안 국가들과 북핵, 테러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은 물론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라오스 방문은 1995년 양국 간 재수교 이래 첫 대통령 방문으로, 올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6**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으로 북핵 도발 철저 대비

박 대통령 전방 군단 방문 “북한 도발 땐 강력하게 응징”

©청와대



©북한

❶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4일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하고 있는 전방 군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❷ 북한이 동해상에서 8월 24일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가정상의 위협’이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이러한 위협은 1인 독재인 김정은의 성격을 감안하면 그 위협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도 북한이 도발하면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 UFG) 연습 중인 전방 군단을 전격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부대 장병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이날 북한이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이같이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UFG 연습기간 중에 전방 군단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고위층까지 연쇄 탈북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북한의 다양한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군의 역할과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튼튼한 안보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와 단단하

게 힘을 모아야 반세기 넘게 이어온 북한의 도발과 만행의 고리를 끊고 우리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 UFG 연습기간 중에 전방 군단 방문 “튼튼한 안보태세 갖추고 국제사회와 힘 모아야”

앞서 북한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UFG 연습 개시 이틀 만인 8월 24일 새벽, 동해상에 SLBM을 보란 듯이 시험 발사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곧바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을 지속하고, 또 다시 SLBM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도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 채택 논의에 들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2016 을지프리티엄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된 8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의 한 훈련장에서 육군 K-1A1 전차와 K-9 자주포가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갔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도 동참했다. 미국은 북한의 시험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지역 내 긴장을 높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는 조치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SLBM 발사는 안전 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용서하기 어려운 폭거”라며 “이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단호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월 24일 회의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SLBM 발사는 사태를 더욱 긴장시키고 복잡하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22일 한·미의 UFG 연습이 핵전쟁 도발 행위라며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와 영해, 영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 없이 우리 식의 핵 선제 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이번 UFG 연습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되는 정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연습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향상시켜 역내 방어 및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 극복해야 할 때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

미군의 참가병력은 해외에서 증원되는 2500명을 포함한 약 2만5000명으로, 연례적 연습에 참가하는 미군 및 대한민국 부대들은 각 군을 대표하며, 대한민국 정부 참가기관들도 연습에 참여하고 있다.

UFG 2016에는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필리핀, 영국 및 뉴질랜드 총 9개의 유엔사 전력 제공 국가가 참

가하며,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연습이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실시되고 있는지를 참관한다.

앞서 8월 22일 박 대통령은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북한은 적반하장으로 (사드 배치 결정을) 왜곡하면서 오히려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가 동요되면서 도발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위해 전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주요 인사들의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8월 22일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도 “위기 상황을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지속되고 위기를 극복해내겠다는 국민적 의지마저 약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위대한 역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퇴보의 길로 접어들게 될지 모른다”며 “북핵 문제와 테러 위협,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내겠다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17일에는 한민군 국방부 장관이 경북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주지역을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로 선정한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지역주민의 안전성 등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성실한 답변이 이어졌다.

국방부는 한 장관의 성주 방문에 대해 “사드 배치를 위한 대화의 시작이고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6]

| 기고 |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北 변화 없으면 탈북 행렬 이어진다

● 지난 4월 북한 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출, 7월 홍콩에서 열린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 북한 수학 영재의 망명, 북한 총정 치국 외화 관리 담당 장성급 인사의 잠적, 대남공작 업무를 맡았던 정찰총국 영관급 장교의 한국 망명, 유럽지역 외교관과 동남아 무역 담당 간부 등 10여 명의 한국 입국, 태영호 공사의 가족 동반 탈북 등이 이어지고 있다.

태영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사 업무를 담당하던 고위급 외교관이다. 특히 그의 귀순은 역대 최고위급 외교관이 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그의 귀순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인 것 같다. 우선 빨치산 혈통의 ‘금수저’ 계층이 탈북에 동참했다는 점은 엘리트 계층 체제 이반의 서막일 수 있다. 또한 태 공사는 북한 체제를 옹호·선전하는 최일선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받았을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특히 북한 체제의 뿌리인 빨치산 혈통 고위 인사가 탈북에 동참했다는 점은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해외 주재 외교관과 외화벌이 일꾼들의 가족 동반 탈북이 이어지자 김정은은 ‘25세 이상 해외 거주 자녀들의 본국 소환령’을 내렸다. 이는 자녀들을 ‘평양의 볼모’로 잡아 탈북을 차단해보려는 교육 지책이다. 태 공사도 자녀 본국 송환이 탈북을 결심한 결정적 동기라고 한다. ‘북한으로의 송환이 자녀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작용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변수였다는 전언이다. 이는 북한 엘리트 계층이 ‘북한 체제에는 희망이 없다’는 점을 고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은 2012년 집권 이후 탈북자 단속에 주력해왔다. 집중 단속으로 한국행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증거다. 이로써 김정은에게는 탈북자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됐다. 집권 5년 차 김정은에게 탈북자 증가는 체제 위기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탈북을 막기 위해 올해에만 탈북자 가족과 탈북 브로커, 주민 60여 명을 공개 처형했지만 탈북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입국 탈북자가 증가하고 이들 중 엘리트층의 비율이 높아

지는 원인은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초래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의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특히 해외 체류 엘리트 계층이 체감하는 압박감은 훨씬 높았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경 통제, 공개 처형, 감시와 통제 같은 강압적 방법을 통해 탈북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하지만 탈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강압적 방법이 미봉책이며 근본적 대책이 아님을 말해준다. 탈

“빨치산 혈통의 ‘금수저’ 계층이
탈북에 동참했다는 점은
엘리트 계층 체제
이반의 서막일 수 있다.
또한 태 공사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최일선에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받았을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북 행렬은 북한 체제의 결함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바로 북한 체제의 근원적 변화만이 탈북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김정은은 공포정치를 더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므로 북한 체제의 근원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 체제가 근원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차단하고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게 최선이다. 통치자금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주민들의 정보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절실하다. [G]



정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1억 원·사망자 2000만 원 지급

© 뉴스1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도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왼쪽)이 기사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8월 24일 양자회담을 갖고 있다.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인 기준 생존자 1억 원, 사망자 2000만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월 25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111억 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 원의 액수는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1인당 지원금은 경우에 따라 1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생존자 1억 원·사망자 2000만 원 규모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위해 양국 합의

일본이 지급하게 될 재단 출연금 10억 엔은 일본 정부 예산 중 ‘예비비’에서 ‘국제기관 등에 대한 거출금’ 명목의 자금으로, 공적개발원조(ODA)나 경협자금 등과는 다르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12월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합의 당시 46명이던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12·28 위안부 문제 합의 주요 내용

책임	일본군의 관여와 일본 정부의 책임 명확화 : 고노 담화+일본 정부의 책임 표명
	• ‘군의 관여’ 부분은 1993년 고노 담화 연장선상에 있는 것 • ‘도의적’ 표현 등 수식어 없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사상 최초로 표명
사죄	아베 총리가 2012년 제2기 총리 취임 이후 최초로 군의 관여라는 역사적 사실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죄와 반성’ 입장을 공개적, 공식적 형태로 표명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분들뿐 아니라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일본 정상이 공개적, 공식적 형태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데 이어, 그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재차 자신의 언어로 직접 언급
이행 조치	우리가 설립하는 재단에 10억 엔 수준의 금액을 전액 ‘일본 정부 예산으로 출연’한다는 점에서 아시아여성기금과 본질적 차이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등 다양한 사업 실시. 향후 지속가능한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메커니즘 이행

자료 : 외교부

현금 지급과 별개로 추진될 재단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도출된 한·일 정부 간 합의 내용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재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될 ‘화해·치유재단’은 피해자들의 희망사항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최대한 자율성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곧 재단 계좌로 10억 엔을 송금하게 될 것”이라며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90년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정부가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은 생존 피해자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사망자가 포함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 정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를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 정부의 성의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특히 주한 일본 대사의 피해자 위로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서신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6**

2016 테마전
THEMATIC EXHIBITION

흙으로 빛은 조선의 제기

RITUAL PORCELAINS OF
JOSEON DYNASTY

2016.8.2. 화
10.23. 일

상설전시관 1층 테마전시실
MAIN EXHIBITION HALL
THEMATIC EXHIBITION GALLERY

祭器



고용 + 복지



고용·복지·서민금융 원스톱 서비스 삶을 보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를 지속 확산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절박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센터 직원들이 희망 사다리의 주역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현장 방문에서(2015. 5. 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각 기관별로 나뉘어 있던 취업, 복지, 서민금융 등에 관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정부3.0 협업 모델이다. 2014년 1월 남양주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충해 현재 50개소가 설치·운영 중이며, 올해 말까지 70곳, 내년 말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현황과 성과를 살펴보았다. **G**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일을 통한 국민복지 실현’ 꿈이 영글다



1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5월 22일 천안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원스톱 복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 보령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담실 전경.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그동안은 복지 관련 상담을 받으려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센터를 찾아가야 했어요.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다시 또 미소금융센터를 찾아야 했고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아 그냥 포기한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고용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확대 개편되면서 한 공간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정말 편리해졌어요.”

지난 7월 말 개소한 용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만난 기초생활수급자 김나은(32) 씨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동안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 서비스 기관도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취업 지원은 고용센터, 복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 상담은 미소금융센터 등 각 해당 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복지’, ‘서민금융’ 등에 관한 상담과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을 통한 국민복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구현한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4년 1월 남양주센터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충해 올 7월 말 현재 50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올 12월까지 20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며, 내년 말까지 모든 기존 고용센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환하는 등 총 10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2014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국제 콘퍼런스’에서 장피에르 칼라이스 WAPES 유럽담당 부회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매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례로서, 세계적인 공공 고용 서비스 혁신 추세와도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극찬했다. WAPES는 한국,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 93개 회원국이 각 나라의 공공 고용 서비스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출범 3년째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이용자도 점점 늘어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기관 업무 연계 건수가 2014년 959건에서 2015년 2만101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실적도 2015년 6월 센터당 월평균 118건에서 2016년 6월 223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취업자 수도 2015년 7월 센터당 월평균 660명에서 2016년 6월 766명으로 16.07% 증가했다. 민원 만족도도 같은 기간 4.0점에서 4.24점(만점 4.5점)으로 더욱 높아졌다.

2017년까지 100개 확충

센터당 취업자 수 월평균 766명으로 증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센터(고용노동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가족부), 복지지원팀(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서민금융센터(금융위원회), 장년일자리희망센터(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참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센터는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관련 업무를 취업 상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일자리발굴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취업 알선을 활성화해나가고 있다. 복지지원팀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보육 등 22개 부처 317개 복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업무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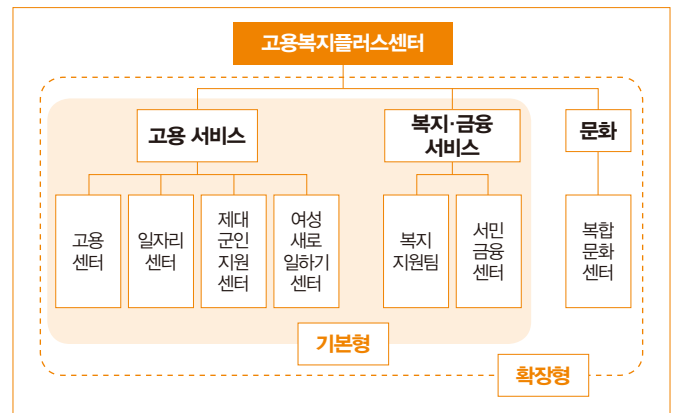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40대 이상 중·장년이 양질의 일자리로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의 직업 상담과 직업 정보 제공은 물론 취업 알선 및 복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지원센터는 신용이 낮은 7~10등급과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이하 등이 담보 없이 2~4.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사업 등을 개별 또는 연계된 종합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부 센터에서는 민간 대체 인력뱅크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가 입주해 육아휴직자 등의 대체자를 알선하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

충남 서산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다. 2014년 9월 문을 연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6층에 자리한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사진과 그림 전시회가 연중 이어지고, 한지공예 등 무료 문화강좌도 열리고 있다. 또한 저렴하게 커피와 차 등을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가 있어 이곳에 등지를 튼 20여 개 동아리의 사랑방 구실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70~80명의 서산 시민들이 이곳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바로 아래층에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을 융합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취업예로계층 구직자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참여기관 간 연계로 심층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 동행 면접, 취업 후 사후관리 등 통합적인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기반 위에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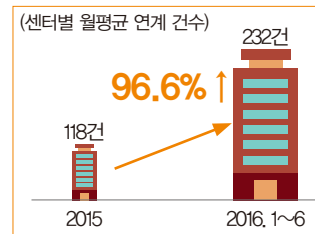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확충뿐 아니라 기능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주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로능력수급자 등 고용·복지 연계 가능성이 큰 대상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인근 시·군·구 민원인의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참여기관 및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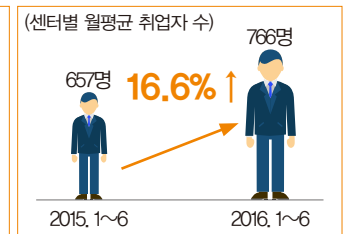


* 참여기관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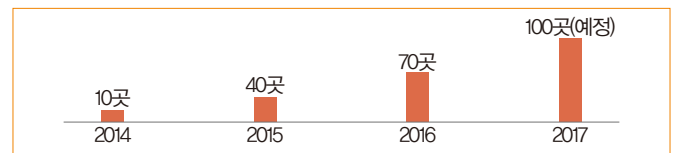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취업자 증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개설 현황



한편 정부는 경남 거제시에 조선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센터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 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종의 퇴직(예정)자와 가정의 생계 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추진한다.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 창업 및 취업 알선, 직업훈련 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서민금융 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또 귀농맞춤형 영농교육 제공, 실직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등 특화사업도 운영한다. **G**

30대 싱글맘의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용기

“취업 알선부터 생계 지원까지 한 번에 OK!”



❶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전국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지난 7월 문을 열었다. ❷ 센터에서는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거나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인을 위해 초기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❸ 수급자격 심사 창구의 모습.

글·사진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최초의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인천센터)가 7월 22일 문을 열었다. 이곳엔 복지지원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여러 참여기관이 입주해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최초로 대규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들어서 신용 회복, 미소금융

등 금융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관 간 연계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기자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을 가정해 인천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다.

(실제로 상담을 받으려면 신분증 조회를 통해 지원 가능한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담사와 사전 협의해 가상으로 꾸몄다.)

“원하는 기업의 구인 정보를
수시로 알려드립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변문정 취업설계사

STEP1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찾기

평일 낮인데도 인천센터는 방문자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일자리 상담 창구가 있는 2층에 들어서니 안내원이 방문 목적을 묻는다. 사정을 말하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구로 안내한다. 결혼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원할 때 찾는 곳이란단.

“결혼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다른 쪽 일은 해보신 적 없나요?”, “취업을 하게 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있나요?”, “원하는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담사는 이같이 질문한 뒤 설명을 이었다. “기업의 구인 공고가 올라오면 구직자의 상황과 희망 조건에 따라 일자를 안내해드립니다. 양쪽에서 승낙하면 면접도 함께 진행하죠.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작성과 모의 면접도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나 상담사는 결혼 후 일을 안 한 기간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생계가 당장 어려운 게 아니라면 먼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교육부터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단순한 경리 업무를 원한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근무 환경이 바뀌어 경리 업무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당장 생계가 궁박해 교육을 받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는 반가운 제안을 한다. 실업급여 상담 창구는 같은 층 바로 옆자리에 있었다.



STEP 2 아르바이트 이력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기

직장을 그만둔 뒤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상담사는 “신분증을 조회해 일용근로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가능하다”며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취업희망카드라고 적힌 안내 책자를 보여줬다.

“여기 보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지급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센터 방문 날짜를 기준으로 이전 한 달간 10일 이상 일했다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분증 조회 결과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간은 6개월,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인 것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은 90일 동안 하루 4만3416원, 28일 한 달로 치면 121만564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이보다 근로기간이 길었다면 최대 8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실업급여 외에도 지원이 있으니 3층 복지지원팀으로 가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 경력도
인정됩니다.”



실업급여과
김경덕 주무관

“한부모가족급여로
생활비와 보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지원팀
정희정 상담원

STEP 3 숨어 있는 복지 급여를 찾아서

“이곳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지 상담을 통해 찾아드리는 곳입니다.” 상담사는 “2인 가구라면 월소득이 약 80만2000원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업급여로 10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했다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소득 기준이 높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다.

“자동차 있으신가요?”, “집은 어떻게 거주하세요?”, “금융소득은 없으신가요?”, “부양 의무자(부모, 남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양비가 부과돼 그만큼을 제외한 금액만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아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한부모가족급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한부모가족급여 대상자가 되면 생활비와 함께 자녀의 연령에 따라 교육비나 보육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급여 수급 대상자에 속하는지는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일단 신청서를 써서 관할 구청으로 보내 통합조사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부모가족급여는 3주 이상, 맞춤형 급여는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걸립니다. 아직 젊으신데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STEP 4 내게 필요한 직업훈련부터 받아볼까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창구가 있는 4층으로 올라갔다.

“희망 직업, 경력 탐색 먼저 하겠습니다. 경리로 일하시려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회계 관련 자격증부터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은 온·오프라인이 모두 있습니다. 학원은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지식포털 HRD-Net에서 거주지 설정을 하면 가까운 곳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는 취업성공패키지로 직업훈련을 받으면 교육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하면 최대 40만 원까지 훈련 참여 지원수당과 훈련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실업급여나 생계급여와 중복해 지원이 되나요?”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하지만 주거·의료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으시는 것과는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21일간 의무적으로 직업 탐색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를 방문해 심리검사도 받고 과제물도 수행하면서 직업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정리해보라는 취지다. 직업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도 매달 1회 정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전화나 문자로 일자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준다고 했다. 상담사와 다음 상담 스케줄을 조정한 뒤 상담을 마쳤다. “그럼 다음 상담은 7일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컴퓨터 공부도 해보시고 이력서도 한번 작성해보세요.”

“학원 수강비에
훈련 장려금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이수현 상담원

그동안 몰라서 받지 못했던 지원들을 상담사들이 꼼꼼히 챙겨주니 든든하다. 당장 취업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복지 지원이 뒷받침되니 천천히 실력부터 갖춰야겠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 **6**

중·장년 취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해 생애 첫 취업한 김정식 씨

“우리 가족의 ‘미래’를 꿈꾸게 해줬어요”



1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에 성공한 김정식 씨. 2 김정식 씨가 공장 오수처리장을 청소하고 있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경북 구미시 구미국가산업1단지에 위치한 태산테크는 휴대폰 케이스 도장 및 실크인쇄 전문기업이다. 따라서 공장 오펜수를 관리하는 게 힘들지만 중요한 일이다. 한창 무더운 오후였지만 김정식(59) 씨는 얼굴 한 번 찡그리지 않고 오펜수처리장을 청소하고 있었다. 오히려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먼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한 여직원은 “더운데 고생하신다”며 시원한 음료를 건네기도 했다.

김정식(59) 씨는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구미센터)의 도움으로 지난해 10월 이곳에 취직해 일하고 있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이라 생각했는데, 정직원 신분이라고 한다.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한 명 없이 전 직원 50명 모두 고용이 보장된 정직원”이라고 설명하는 그의 얼굴에서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김 씨는 일곱 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면서 학교에 다닐 기회를 잃었다. 그 바람에 한글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정식으로 취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막노동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다.

지난해 10월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정직원 신분 업무 만족도 높아

하지만 젊어서 고생을 심하게 한 탓일까, 40대 중반이 되면서 만성 위염, 고혈압 등으로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갑상선암 진단까지 받았다. 더 이상 막노동을 하기 힘들었다. 그를 대신해 돈벌이에 나선 아내마저 만성B형간염, 허리척추뼈 및 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았다. 조금만 일해도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아들도 유전으로 만성B형간염을 앓고 있었다. 군에 입대해서 5일이 지난 후부터 몸 가누기가 힘들어 거의 누워 지냈다고 한다.

온 가족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그 덕분에 의료 지원을 받아 갑상선암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기초생활보장 지원도 받았다. 그런데 딸이 취업을 하며 가구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자 ‘우선돌봄 차상위가정’으로 지원 내용이 바뀌었

다. 그 바람에 생활이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생활비 때문에 이곳저곳 돈을 빌리다 보니 어느새 1000만 원 가까운 빚까지 지게 됐다.

김 씨는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고혈압 탓에 일자리를 얻기 힘들었다. 딸이 결혼해 독립하면서 지난해 7월 다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그는 구미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전에는 이런 기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주민센터 직원에게 이야기를 듣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찾아갔죠. 센터 직원들이 석 달 동안 자기 일처럼 저를 돕기 위해 애를 썼어요. 정말 감사하죠.”

구미센터는 김 씨와 상담한 후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게 했다. 담당자는 그를 위해 직업진로계획 설계 및 구직정보를 제공해주었다. 한글을 잘 몰라 스스로 이력서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를 위해 한글 공부를 할 수 있는 곳도 알아봐주었고, 부채 문제 해결과 신용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센터에서는 무엇보다 저의 건강을 해치지 않을 범위에서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애썼어요. 세심한 배려가 고마웠죠.”

구미센터의 도움으로 이력서를 작성해 이곳저곳 지원해보았지만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았다. 학력이 최소 중졸은 되어야 하고, 글은 쓸 줄 알아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학력이 문제 되지 않도록 이력서를 수정했다. 이력서 내용 중에 학력을 지우고 공공근로, 자활센터, 일용근로 등 그동안 했던 경력들로 채웠다.

3개월 동안 센터에서 입체적 지원과 도움 제공

아들도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통해 취업 성공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다. 김 씨를 담당하는 센터 직원이 워크넷 구인정보에서 괜찮은 업체를 발견한 것이다. 태산테크에서 올린 채용공고를 본 센터 직원은 태산테크 채용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통해 환경미화원 자리이고, 학력은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씨에게 취업 의사를 확인한 센터 직원은 면접 일정을 잡아주고, 면접 때도 자립상담사로 하여금 동행 면접을 하도록 했다. 또한 태산테크에 김 씨를 채용할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센터 담당 직원으로부터 취업이 됐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얼마

나 기뻐는지 몰라요. 제 인생에서 첫 정식 취업이었거든요. 아내도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죠.”

구미센터 담당자는 그의 건강을 염려해 “힘들면 쉬었다가 다시 일해도 된다”고 했지만 김 씨는 취업 후 10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몸이 아파 결근하기는커녕 지각 한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태산테크 경영지원팀 김성민 차장은 “힘든 표정 한 번 없이 항상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일을 하셔서 직원들 모두 좋아한다. 특히 막노동을 많이 하셔서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일도 쉽게 잘하신다”며 김 씨에 대해 만족스러워했다. 처음 채용하면서 우려된 점은 없었는지 묻자 “학력이 부족하시긴 했지만 하는 일이 학력과는 큰 상관이 없고, 의사소통이 안 되시는 것도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처음엔 조직 생활이 서툴러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잘 챙겨주고 가르쳐줘서 지금은 능숙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교육도 잘하고,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일에 대한 기본 자질을 잘 가르쳐드린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런 인재를 추천한다면 적극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만성B형간염을 앓는 김 씨의 아들도 구미센터의 도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현재 지역 병원 야간응급차 기사로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취업성공패키지 자활사업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씨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우리 가족에게 ‘희망센터’가 됐다”며 “나처럼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밝게 웃었다. **6**

구미센터 김정식 씨 지원 사항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진로계획 설계 및 구직정보 제공, 한글 공부 지원
신용 회복 서비스	자산관리공사 통해 부채 확인 및 신용 회복 진행 과정, 필요사항 안내
동행 면접 등 취업 지원	학력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업무 경력 위주의 이력서 작성 지원

청년 취업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도움으로 한식조리사 도전 이현민 씨

“당당히 취업해 가족에게 행복 주고 싶어요”

박섯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이현민(가명·26) 씨의 어깨는 또래 다른 친구들보다 몇 갑절은 더 무거웠다. 꿈만 꾸기에도 벽찬 20대에 이 씨는 우울증을 앓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동생을 보살펴야 하는 가정의 책임까지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 씨는 환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없지만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나아가 할 방향을 알게 되고, 조금씩 준비해나가면서 가족에게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취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케이블 회사에서 설치기사로 일했는데 업무차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 화근이 됐다. 성실하게 고객들에게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신뢰를 얻은 것도 모두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후 이 씨는 동두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동두천센터)와 인연을 맺게 됐다.

“처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께서 실업급여부터 우리 가정을 위한 자립 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취업 준비를 위해선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모두 알려주셨죠.”

자립을 위해서는 진로 성숙도가 높고 취업 장애 요인이 없어야 하는데, 이 씨는 두 가지 모두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진로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었고, 진로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다. 상황을 파악한 사례관리사는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 논의했고, 그가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위해선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취업성공패키지를 권유했다.

생계급여 신청·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족 구직 지원 및 장애 등록도 지원

그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듣고 싶었지만, 가장으로서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기 때문에 고민이 컸다. 담당자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그의 자립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고, 다행히 두 달 뒤 생계급여 대상자로 선정돼 취업성공패키지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 씨는 한식조리사의 꿈을 키우며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기다리고 있다.

동두천센터는 이 씨의 가족을 위한 지원도 이어나갔다. 먼저 무한돌봄팀 사례관리사는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이 씨의 동생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이 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머니의 구직 지원에도 나섰고, 어머니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어려움을 느끼는 한글 공부를 위해 야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 씨는 “평소 자주 우울해하던 어머니가 공부도 하고,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얼른 한식조리사로 당당히 취업해서 돈도 벌고, 맛있는 음식을 순수 가족들에게 해주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 실직의 늪에서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힘들어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생계급여를 포함해 온 가족이 더 좋은 방향으로 혜택도 받고, 취업준비를 하니 힘이 생깁니다. 우리 가족에게 터닝포인트를 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정말 감사합니다.” **G**



동두천센터 이현민 씨 지원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이 씨와 어머니는 취업 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 찾기에 집중
생계급여 등록 지원	이 씨가 구직 활동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워진 이 씨 가정의 생계급여 신청 지원
사랑나무 야학	한글 공부가 필요한 어머니에게 야학 한글 공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적장애인 등록 지원	인지장애가 있는 동생이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

여성 취업 | 김포센터 지원받으며 간호조무사 꿈꾸는 윤민정 씨

“위기 때마다 받은 도움… 꼭 취업하겠습니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윤민정(가명·24) 씨는 세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여성 가장이었다. 남보다 일찍 결혼했지만,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과 성격 차이 등으로 이혼했다. 하지만 윤 씨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는커녕 양육비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처지였다.

이혼 한 달 후인 지난해 2월, 윤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시 김포고용센터를 방문했다. 센터의 상담사들은 따뜻하고 편한 웃음으로 윤 씨를 맞았다.

상담사의 권유에 따라 윤 씨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결혼 전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가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직업 선호도 검사 결과에서도 윤 씨의 적성에 간호조무사 일이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씨는 매달 28만4000원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기 시작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센터 방문

가족처럼 맞아주는 상담사 덕분에 희망 가져

하지만 윤 씨는 6개월간의 훈련참여지원수당의 지급이 끝나자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했고, 아이와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번에도 김포센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상담사분이 그사이 김포고용센터가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김포센터)로 새롭게 문을 열면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게 세 살 아이가 있기 때문에 무한돌봄 위기 사유가 적용돼 3개월간 80만 원씩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련은 끝난 게 아니었다. 긴급지원금을 받기로 결정된 이후,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사고를 당한 것.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학원 수업을 할 수 없었다.

“정말 힘들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좌절도 했죠.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취업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때마다 김포센터 상담사분들은 끝까지 저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죠.”

김포센터는 윤 씨의 실업 상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임대아파트의 월세가 체납되는 등의 문제를 돕기 위해 삼성미소금융에 윤 씨의 상담을 의뢰했다. 상담 결과, 윤 씨가 국민임대아파트의 거주자일 경우, 저금리로 아파트 전환보증금대출 지원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대출이 승인되면 현재의 임대료가 1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거라고 합니다. 김포센터 상담사분들이 저를 얼마나 가족처럼 살피주는지 정말 감동스럽고 감사하답니다. 제가 아직 취업에 성공을 못 했지만, 저를 믿고 응원해준 상담사분들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꼭 취업에 성공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G

김포센터 윤민정 씨 지원 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심리검사 통해 간호조무사 자격증 훈련 참여 및 참여기관 협업으로 취업 알선
긴급자금 지원	무한돌봄 위기 사유에 해당, 긴급자금(월 80만 원) 3개월 지원
전환보증금 대출 지원 연계	구직 활동 중 주거 임대료 등 경제적 어려움 예상되어 임대아파트 거주자 전환보증금대출 서비스 연계

희망의 사다리를 놓는 사람들

남다른 사명감... '살맛 나는 세상' 도우미

캐디로 일하는 54세의 경력단절여성,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영업자,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로 다
시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결혼이주여성... 이들의 삶이 정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도움의 손길 덕분이다. 전국 50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은 지역주민의 구직 활동을 돕고 생활이 회복되도록 복지와 금융 서비
스를 찾아 연결한다. 이들은 오늘도 누군가의 앞날에 디딤돌을 놓는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고용서비스(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제천센터 장영희 부장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캐디 배출, 나이 장벽 허물었죠”

● 제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2015년 10월 개소, 이하 제천센터)에는 요즘 활기가 넘친다. 제천센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올해 10명의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골프장 캐디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합격자는 54세 여성이다. 20, 30대 여성이 주로 종사하던 골프장 캐디 업종에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이 진출한 것은 나이의 장벽을 허문 드문 사례로 꼽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보다 활발해졌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다. 제천센터에서 고용 업무를 총괄하는 장영희 부장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현실’을 이렇게 말했다.

“제천에 소재한 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생산제조사업입니다. 단순노무직이어서 근로자의 채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요. 기업은 학력, 자격증, 기술 등 개인의 능력보다는 조직에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죠. 문제는 이런 업체들의 처우와 직무에 대한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겁니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채용 위해 제천고용센터·골프장 MOU 체결 3개월 과정으로 캐디 현장실습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책 세워

제천센터는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면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때 장 부장과 제천센터 실무자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 골프장 캐디였다.

산간지방인 제천은 곳곳에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문제는 최근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캐디를 구하기 어렵게 된 것

이다. 제천센터는 이런 사정을 파악해 골프장 4곳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전제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채용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 중·장년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3개월 과정의 현장실습 프로

그램을 마련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캐디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제천센터가 마련한 재취업 준비는 두 가지다. 먼저 구직자가 취업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다음으로 본인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병행했다. 이를테면 컴퓨터 활용 능력은 다른 자격증에 비해 취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하는 것이다.

이번 결실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장 부장은 “이번 일로 실무자는 구직자에게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전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실무자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의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그 환경에 최적화하도록 구직자들을 준비시키는 실무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을 여는 열쇠라는 소리다. **G**



이은영 기자

“고용센터는 제2의 삶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 목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2015년 12월 개소, 이하 목포센터) 복지지원팀 원성희 주무관은 23년간 노인과 장애인 복지 업무를 맡아온 베테랑이다. 그가 근무하는 목포센터는 다른 지역보다도 산업체가 적다. 그나마 있는 업체도 중소기업인 데다 업종 대부분이 조선업이다. 한때 잘나갔던 조선업은 현재 불황의 직격탄을 맞은 탓에 조선업에 종사하던 이들의 생활 여건이 크게 나빠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복지상담 건수가 점점 늘어난다. 원 주무관은 하루 평균 5~10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세 청년부터 50대 중·장년층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6 : 4의 비율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다. 고용센터를 찾는 이들의 목적은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복지지원팀은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갑자기 실직을 당해 소득이 줄면서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복지지원팀이 적극 움직여 구직자의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줍니다.”

구직 상담하러 왔다가 고용·복지 통합 서비스 받아

고용센터가 고용·복지 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실직 후 곧바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들은 제일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를 신청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목포센터가 통합 지원 서비스를 구축해 지원한 A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남편과 이혼한 A 씨는 17세와 15세 된 두 딸과 지낸다. 문제는 큰딸이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후 심각한 심리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결국 고등학교를 그만뒀다. 둘째 딸 역시 집에만 있어 A 씨를 근심하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A 씨가 직장을 잃어 이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했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한 나머지 A 씨네 가족은 아는 사람이 거주하던 사택에 머물며 지낸다. 하지만 회사가 마련한 사택이기 때문에 직원이 아닌 A 씨는 더 머무를 수 없는 처지다.

원 주무관은 A 씨네 가정에 대해 네 가지 통합 서비스를 마련

했다. 푸드마켓을 통해 양식을 제공받도록 돕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큰 딸에게 학습 지원 서비스인 ‘청소년 동반 프로그램’을 연결했다. 두 딸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통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알아보고 있다. 상담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A 씨네 가정은 A 씨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목포센터를 방문한 후 결과적으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물론 한계점도 있다. 원 주무관은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정작 일자리가 없어 연결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국가에서 자활사업을 연결해 수급자가 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일감을 제공할 업체마저 마땅치 않아요. 고용시장에서 취약계층인 이들이 최소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선마저 무너질까 봐 걱정스럽지요.”

그래서 원 주무관은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는 실무자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무자가 어떤 마인드와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 상담자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모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지켜볼 일은 아닙니다. 상담자에게 연결할 수 있는 제도를 최대한 찾아서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제2의 삶을 만들어주는 곳이니깐요.” **G**



복지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원성희 주무관은 “고용과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고용센터가 두 영역을 결합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원성희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영업자도 도와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대출도 개인회생도 도움을 못 받나요?”

한 자영업자가 서울강서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서울강서센터)에 찾아와 급히 물었다. 실무자의 눈에 비친 그의 표정은 절실했다. 실무자는 곧바로 자영업자에게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제도를 소개했다. 신용이나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중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다가 2년 전 정년퇴임한 노승훈 지부장은 올 초부터 서울강서센터에서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앞에서 언급한 사례처럼 포장마차, 미용실, 택배업 등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신용과 자본력이 탄탄하지 못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서울강서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서센터의 서민금융센터를 급히 찾는 이들 중 대부분은 자영업자다. 주부나 구직 상태의 청년층도 간간히 상담을 요청한다. 금융 베테랑인 노 지부장이 꼽는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 지식이 없다는 점이다. 전화 한 통이면 대출이 가능한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카드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다가 뒤늦게 사금융이 불러오는 폐해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결과 어마어마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장을 접거나 엄청난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

눈앞에 닥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일자리를 얻고자 서울강서센터를 찾아온 이들은 구직 상담을 하다가 서민금융센터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노 지부장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서민금융센터 찾는 이들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자영업자 대출보다 개인회생·파산 상담 요청 많아… 금융교육 절실

공교롭게도 이들이 요청하는 사항은 대출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다. 상담 대부분이 신용 회복, 채무 조정, 파산제도 상담과 관련됐다. 그만큼 이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얘기다. 서울강서센터는 서민금융 취약계층의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신용이 곧 돈이다”라는 말처럼 현대사회에서 신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한 경제활동을 근거로 신용을 담보로 또 다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더는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돼 제도권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부지기수고요.”

서민금융센터에서 금융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등)이거나 지역건강보험료 7만5000원 미만 납부자, 개인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여야 한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서민금융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 지부장은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수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저축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저축은행의 대출 이율은 대부분 대부업체 수준이고 연체이자도 살인적이다. 더욱이 신용불량자의 경우 현금서비스의 이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기업에서 만든 신용카드인데 이율이 높겠느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서민금융의 목표는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자활을 돕고 빈곤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가 나서야 해요. 그 일을 현재 서울강서센터의 서민금융센터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합니다.” **6**



서민금융 업무를 맡고 있는 노승훈 지부장은 “서울강서센터의 서민금융 목표는 금융에서 소외된 서민의 자활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기

“다양한 일자리 매칭,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해야죠”

● 올여름,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양산센터)의 일자리센터로 노란 머리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외국인 여성이 방문했다. 모나코 태생의 결혼이주여성 A 씨다.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힘들어 이혼을 감행했지만, 그에겐 세 명의 자녀(4세, 11세, 15세)가 있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했던 A 씨는 당장 일자리부터 구해야 했다. 하지만 자녀들의 나이가 어려 이들이 학교와 보육기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오후 6시에는 A 씨가 퇴근해야 했다. 일자리센터를 이끄는 김태명 팀장은 복지지원팀과 협의해 A 씨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사례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결혼이주여성인 A 씨는 외국인 가정인 데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이었고 저소득층에 속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고용과 복지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한국어가 서툰 데다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서른네 살로 젊고 작업 능력이 우수했다. 무엇보다 ‘반드시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김 팀장은 A 씨의 특성과 거주지 인근 사업장 간의 특징을 고려해 다양하게 매칭을 시도했다. 그 결과, A 씨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지 8일 만에 위생용품 제조업체에 물수건 포장작업자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일자리를 구한 후 고정적인 소득이 생긴 A 씨는 세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지를 알아보고 있다.

초기 상담 통해 구직자 상황 면밀하게 분석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로 인생 재설계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제2의 삶을 시작한 이들은 또 있다. 신용불량자였던 40대 여성 B 씨는 양산센터의 도움을 받아 신용을 회복한 데 이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간호조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2015년 갑상선 수술을 받아 몸이 불편했던 C 씨도 일자리센터와 복지지원팀 간의 협업체계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한다.

“초기 상담을 통해 구직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조건에 부합한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여러 시·도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와 달리 양산센터는 양산시에 소재한 단일 기관으로서 정책이 통일성을 갖추고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양산센터의 일자리센터를 찾는 이들은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족, 실직자가 대부분이다. 그중 전체의 90%가 실업급여 신청자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는 것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산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양산센터에 따르면 양산 지역의 6개 산업단지과 공업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10인 미만의 제조회사가 전체 기업의 80%를 차지한다. 2010년 이후 양산에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는 늘어도 청년층의 비율은 여전히 낮다. 이 때문에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하다. 양산센터는 젊은 층을 대체할 근로자로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여성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젊은 층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매월 1회씩 청년과 기업의 만남을 주선하는 ‘만남의 달’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청년은 이력서 작성과 면접 컨설팅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의 장점은 한자리에서 민원인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부서의 협조체계가 고용·복지 종합 서비스를 좌우하는 셈이죠. 이런 시스템을 기반으로 양산 지역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 문제도 해결해보려 합니다.”



일자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태명 팀장은 “원만한 협조체계를 통해 구직자에게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문태경

주택 공급 조절·집단대출 관리 강화 가계부채 급증 브레이크 건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8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올해 2분기 말 1257조3000억 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 문제 해소에 나섰다. 정부는 8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던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비(非)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는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 관리,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종합적인 관리방안"이라며 "특히 금융대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를 주택시장 측면에서도 균형 있게 접근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택지 매입 단계부터 주택 공급 조절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에 의무화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 공급에 적극 대응한다. 건물이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가 자리 잡은 주택시장의 특성

상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 공급을 조절하는 수단을 포함한 것은 공급 과잉이 현실화할 경우 집단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 택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을 조절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의 신청 시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하고, 경기 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을 통해 PF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택지 매입 전 분양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 심사를 거쳐 주택 과잉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한다.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더욱 철저한 공급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내달부터 미분양 관리지역도 확대한다. 현재는 미분양 지표만 고려해 지정하는 '미분양 관리지역(2016년 7월 현재 20개)'을 인허가, 청약 경쟁률 등의 지표를 반영해 확대할 방침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 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 본점 심사 등을 의무화해 시행사의 건전성 기준(국세·지방세 체납 등)을 강화한다.

부채 관리 측면에서는 상호금융권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

환 유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상호금융 이용자들이 영세 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해 적용을 유보했다.

가계부채 급증시킨 '집단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다

최근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집단대출의 경우,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가 강화된다. 집단대출은 신규 분양, 재건축, 재개발아파트 입주 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대출로 중도금, 이주비, 잔금대출을 포함한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은 크게 따지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담보대출이 19조 원 늘어났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0조 원 정도가 집단대출로 집계됐다.

정부는 주택 경기를 고려해 강력한 제동을 걸기보다 은행권의 소득 심사를 강화하는 선에서 중도금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 대출 심사 시 차주에 대한 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지난 1~6월 중도금 대출 차주의 소득 확인방식을 보면 미흡한 경우가 41.3%에 달했다. 이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을 100%에서 90%로 줄이고, 1인당 보증 건수 한도를 통합 관리한다.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방식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신규 대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입주자 전용 보증자리론(가칭)'을 내년 1월에 내놓는다.

그 밖에도 전세대출은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눠 갚는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신용대출의 경우 소득별, 차주별 분석과 함께 실태를 점검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총체적상환부담(DSR) 시스템에 활용한다.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현행 50~80%인 담보 인정 한도를 40~70%로 인하한다. **6**

가계부채 관리방안 주요 내용 Q&A

Q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특징은.

A 가계부채 대책 최초로 주택 공급 관리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요인이자 향후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지 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의 근본적 대응책을 추가했다.

Q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A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빠른 증가 때문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이드라인 시행 등으로 현저히 둔화된 반면,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은행권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22조2000억 원 감소했지만, 집단대출 증가 규모는 13조1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Q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

A LTV와 DTI 규제 합리화는 10여 년 전 주택 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현재는 환원할 계획이 없다.

Q 집단대출에 DTI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는지.

A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중도금 대출은 보증부대출인 데다 대출 만기도 짧아 DTI나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선분양제도하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및 입주를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신 이번 대책에서는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 예외로 인정되어온 집단대출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포함됐다.

Q 전세자금대출 부분분할상환의 실효성에 논란이 있는데.

A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차주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어렵다. 반면 전세대출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해 만기 시 원금 상환 규모는 줄이고 총 이자 부담을 낮추려는 수요는 존재한다. 이자 부담 감소 효과 외에 주택임차 차임금 원리금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하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권 등을 고려해 '차주가 원하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기고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안양대 교수

청탁금지법, 국민이 행복한 사회의 출발점



국민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이 8월 10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청탁금지법 특강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법 취지와 적용기준, 처벌 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민국에 이처럼 법률 하나가 오랜 기간을 두고 언론의 조명을 받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언론사와 각급 학교의 종사자를 비롯해 국민 대다수의 시선을 모은 적은 없었다. 한마디로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헌법 소원이 제출되는 초유의 일도 있었다. 어찌 되었건 이 법은 정부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저절로 홍보가 되었다.

법률 명칭에 있듯이 이 법은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는 내용이다. 공직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그러하지를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 법은 시행 일인 2016년 9월 28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에 격변을 예고한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더 그렇다. 이날 자정에 청렴사회를 알리는 종을 울릴 만도 하다면 지나친 감상일까?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돼 있듯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하려면 공정사회의 기반이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편파적 우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부패한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부정부패 일소를 내세운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 비리 공직자가 엄한 처벌을 받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구태를 반복한다. 더구나 부패의 단초인 청탁과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형법의 한계인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변죽만 반복적으로 울려왔다. 2002년 부패방지법도 제정되고,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를 거쳐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 조직으로 설치됐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결국 우리 사회의 부패는 현행 형법만으로는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문화를 바꾸지 않고는 더욱더 정의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제 바로 청탁금지법의 탄생을 불러오게 했다.

연고주의 풍토에서 공직자에게 건네지는 일종의 보험료인 금품을 차단하는 길은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다. 세상에 누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랜저와 벤츠 승용차를 줄 수 있겠는가? 형제자매 사이에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늦은 시간까지 밥 사주고 술을 사주겠는가? 선물도 다룰 바 없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는 몰라도 이러한 접대 문화를 그대로 두고는 부정부패를 막기 어렵다. 공직사회에 접대 문화 풍조가 상존한다면 공직자가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풍토에서는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라도 접대를 거절하기 쉽지 않다.

접대와 청탁에 익숙한 소수에게 제재 가하는 법률

부패인식지수 상승으로 대외신인도 올라갈 것

청탁도 매한가지이다. 청탁금지법 제5조 1항에서 열거했듯이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온갖 청탁이 만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청탁과 금품이 붙어서 다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다. 가령 친구와 친지, 동향의 선후배, 더구나 상사의 전화 한 통을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인간관계를 끊을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 매물차게 말하기가 어렵다. 공직자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당장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든 절대적인 피해를 주는 일

이다. 때로는 정부 조달에 정품이 아닌 불량품이 납품돼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가기도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아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청탁을 주고받으며 사이 좋게 지내왔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이런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결국 청탁금지법은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법률로써 차단하려는 것이다. 접대와 청탁에 익숙한 소수의 공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에게는 청탁과 접대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주는 착한 법률이다. 앞으로는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며 청탁을 들어달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또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수하면서 금품을 받으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선진 문화국가에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청탁과 접대 문화일지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미풍양속과 사회상규로 포장되는 게 관행이었다. 어느 누구도 대놓고 청탁금지법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접대가 중요한 수입원인 외식업계와 유흥업계, 선물이 소득원인 농·수·축·임산물 업계에서 매출이 반 토막이 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음식물 접대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주장에 따르면 3만 원과 5만 원 이상 매출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원의 '청탁금지법의 적정 가액 기준 및

경제 효과 분석'이란 연구 결과를 보면 선물의 경우 예상되는 매출 감소가 최소 0.0052%에서 최대 0.86%에 불과하다. 오히려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해 기업의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산업 전반에 불건전한 경쟁구도가 철폐돼 건전한 경쟁구도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청렴도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만큼 개선되면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65%포인트 추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은 접대 문화와
청탁 문화를 법률로써
차단하려는 것이다.
접대와 청탁에 익숙한
소수의 공직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률이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자에게는
청탁과 접대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주는 착한 법률이다.”**

청탁금지법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 말고도 비경제적 효과가 너무 크다.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언론사, 학교 포함)에 청탁과 접대가 현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사회 갈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고가의 유흥업소와 외식업계는 퇴조하면서 건전한 소비 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기업 역시 접대 관행이 줄어들면 건전한 회식 문화가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직장 문화보다는 가정 중심의 문화로 변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의 상승으로 대외신인도가 올라갈 것이 분명하다. 현재 37위인 부패인식지수는 머지않아 월드컵 본선 무대라 할 수 있는 32위로 진입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국제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금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6**



신상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공무원 채용 등 적극 활용

박섫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사회가 깃발을 빼 들었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채용, 교육훈련, 승진 임용 등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떠나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NCS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의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길러내는 인재 양성 및 관리 가이드라인이다. 정부의 NCS 기반 채용 권장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직업교육 및 훈련과정 편성에 NCS를 전면 적용하는 등 직업교육(특성화고·전문대)과 훈련(폴리텍·훈련기관), 자격제도 등이 현장에 맞게 개편되고 있고, 기업에서도 능력 중심 채용과 인사관리를 점차 늘려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직위별 기초직업능력과 직무 역량을 설정하고, 관리자로서 직무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리더 커뮤니케이션, 성과주의 인사관리, 정부 협업 등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이는 역량 평가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이 과목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과장급과 국장급 교육과정을 분야별로 ‘도입→심화’ 프로세스로 연계해 체계적으로 리더를 육성하는 방식인 경력 단계별 리더십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과장 승진 시 실시하고 있는 역량 평가에도 NCS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기능별 110개 직렬 세분화해 채용 평가

채용·교육훈련·승진 임용에 NCS 요소 적용

한편 인사혁신처는 공직 적격성 평가(PSAT), 역량 면접, 승진, 보직관리 부문의 역량 평가제도 등 이전부터 직무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PSAT는 2005년 5급 공채시험에 도입해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등 3대 영역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 공직 기초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집단 토의, 개인 발표, 경험·상황 면접, 5분 스피치 등 다양한 역량 면접을 시행하고 있다. 국·과장급 역량 평가에서는 정책 기획 능력, 성과·조직관리 능력 등에

5급 공채 PSAT 및 5·7·9급 역량 면접 도입 현황(2005~2016년 현재)

NCS	직무 역량 평가		역량 면접
	직업 기초능력 (의사소통· 직업윤리 등)	직무 관련 지식·기술· 소양	직무 관련 경험 모의 상황 면접 프리젠테이션 등
공무원 채용	5급 공채	PSAT (공직 기초 능력)	전공 필기시험 (행정 5, 기술 4과목) 역량 면접 · 관련 경험 면접(BE) · 모의 상황 면접 · 토론 면접 · 개인 발표 면접 * 그룹별 개인 발표 도입(2015년부터)
	7급 공채	기본 소양 (국어·영어· 한국사)	2차 필기시험 (행정 4, 기술 4과목) 역량 면접 · 관련 경험 면접(BE) · 모의 상황 면접 · 개인 발표 면접 · 토론 면접(2015년부터)
	9급 공채	기본 소양 (국어·영어· 한국사)	2차 필기시험 (행정 2, 기술 2과목) 역량 면접 · 관련 경험 면접(BE) · 모의 상황 면접 · 5분 스피치(2015년부터)
	경력 채용	PSAT (공직 기초 능력)	서류전형 (전공지식· 기술 평가) 역량 면접 · 관련 경험 면접(BE) · 모의 상황 면접 · 토론 면접 · 개인 발표 면접

자료 : 인사혁신처

대한 교육과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과장급 직위에 보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NCS는 산업 부문을 24개 분야, 847개 직무로 구분해 각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설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사관리는 정부 조직의 다양한 기능을 110개 직렬로 세분화하고, 각 직렬의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개별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의 기준을 정해 인재를 채용하고 있어 사실상 NCS 채용 방식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앞으로 공무원 인사관리가 NCS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스펙이나 배경을 초월한 능력 중심 사회를 만들고 공무원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G**

난임 시술 지원 9월 전 계층 확대 내년 출생아 2만 명 늘린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18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명이나 줄었다. 이에 정부는 8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자녀를 원하는 불임 가구의 출산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저소득층에게만 지원되던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을 9월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현재 5만 명에서 9만6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 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연간 14만 명에 달하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숙아(2.5kg미만 출생) 집중 치료 및 후속 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10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이미 아이가 있는 경우 계속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 현행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린다. ‘아빠의 달’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데 이어, 지원금 상한액을 50만 원 더 인상한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내년 초등돌봄 전용교실을 올해보다 182실 늘려 약 36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에 재택·원격근무 시스템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부모 순차적 육아휴직하면 석 달간 월 최대 200만 원 지급

자녀 3명 이상이면 어린이집·국민임대주택 입소·입주 우대

맞벌이 3자녀 가구의 경우 대기 순서 등과 관계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 배점을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주택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해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넓은 면적(50㎡ 이상) 주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

다. 3자녀 주택특별공급 시 자녀 기준에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와 ‘입양’도 포함했다.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희망하는 근무지에서 일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우선 교원을 대상으로 자녀 2명이 0~6세이면 근무지 전보 시 가점을 부여하고, 3자녀 이상이면 전보 시 희망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 것. 이 조치는 향후 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된다.

이번 대책에는 모두 600억~65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내년 출생아 수가 2만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제16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개최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 인력의 활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기업인들에게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6]

저출산 보완대책 주요 내용

분야	내용	기대 효과
첫째 자녀 갖기 대책 강화	• 모든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 지원 전면 확대 • 여성 근로자 첫 아이 안심출산 시스템 구축 •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 지원 강화	8000 ~ 1만2000명
일·가정 양립 선순환 체계 정착	•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 최고 200만 원으로 인상 • 유연·탄력근로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 개혁 • 맞춤형 보육, 초등돌봄 등 고용·돌봄 연계 강화	8000명
둘째·셋째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	• 맞벌이 3자녀 가구, 국공립 등 어린이집 입소 최우선권 부여. 맞벌이 아닌 3자녀 가구도 입소 배점을 현재 2배로 대폭 상향(100→200점) • 다자녀 가구 국민임대주택 공급 시 넓은 면적(5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 우선 배정. 세 자녀 기준에 그간 인정되지 않았던 태아, 입양 포함 • 교원 3자녀 이상은 희망지 우선 배치, 2자녀의 경우 모두 0~6세 대상 2017년 7월 이후 출생 둘째부터 적용 검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	2000명

자료 : 보건복지부

팀 코리아 '유종의 미'

종합 8위... 도전은 아름다웠다



최호열 | 위클리 공감 기자

● 지구촌 축제인 리우하계올림픽이 8월 22일 오전 7시(이하 한국시간) 폐막식을 끝으로 1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마지막 영웅은 '골프 여제' 박인비(28·KB금융그룹)였다. 8월 21일 리우올림픽 골프 코스에서 열린 골프 여자부 마지막 라운드에서 박인비는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펑산샨(중국)의 추격을 여유 있게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박인비는 남녀를 통틀어 세계 골프 사상 처음으로 4개 메이저대회 우승과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일궈낸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의 위업을 달성했다.

2008년 US여자오픈에서 역대 최연소인 만 19세 나이로 우승한 박인비는 지난해 브리티시오픈 우승으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등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7승(메이저대회 7승 포함)을 거두며 현역 최고의 골퍼로 군림했다. 지난 6월 역대 최연소로 LPGA 명예의 전당에 가입한 그였지만, 왼손 엄지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 자체가 불투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인비는 '한계에 도전한다는 올림픽 정신'으로 출전해 금메달을 따냄으로써 왜 그가 골프 여제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여자 골프는 국적을 떠나 한국인을 위한 종목이었다. 박인비의 금메달에 이어 리디아 고(19·뉴질랜드, 한국명 고보경)가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도 양희영(27·피엔에스골프단)과 노무라 하루(24·일본, 한국명 문민경), 이민지(20·호주) 등 총 5명의 한국인이 톱10 안에 이름을 올렸다.

박인비 골든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태권도 출전 5명 모두 메달 획득 쾌거

전날인 8월 20일에는 여자 태권도 -67kg급 결승에서 오혜리(28·춘천시청)가 세계랭킹 1위 하비 니아레(프랑스)를 13-12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혜리는 그동안 한국 태권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딴 황경선의 그늘에 가려 있던 데다 국제대회와는 인연이 없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대표 최종선발전을 앞두고 허벅지 근육이 파열돼 경기를 제대로 뛸 수 없는 등 불운도 많았다. 하지만 시련을 딛고 값진 금메달을 따냈다.

8월 21일 열린 남자 태권도 80kg 이상급에 출전한 차동민(30·한국가스공사)은 8강전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라디크 이사예프에게 뼈



1 부상을 입고 골프 여자부 금메달을 따낸 골프 여제 박인비. 2 최선을 다한 연기로 국민들의 박수 갈채를 받은 리듬체조 손연재. 3 여자 태권도 -67kg급 금메달을 따낸 오혜리. 4 IOC 선수위원회에 당선된 유승민 씨가 함께 선출된 선수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픈 역전패를 당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승자에게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는 멋진 스포츠맨십을 보여 관중에게서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패자부활전에 진출한 그는 세계랭킹 1위 우즈베키스탄의 드미트리 쇼킨과 겨룬 연장 승부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리우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태권도 대표 5명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시아 최초로 메달 획득을 기대했던 리듬체조의 손연재(22·연세대)는 4위를 차지하면서 아쉽게 메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 “제 연기에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주고 싶다”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한 그의 모습에 국민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육상 황제’ 우사인 볼트(30·자메이카)는 20일 열린 남자 400m 계주에서 우승함으로써 올림픽 역사를 다시 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남자 100m, 200m, 남자 400m 계주를 연속 석권했던 우사인 볼트는 이번 대회에서도 남자 100m와 200m를 석권한 데 이어 400m 계주마저 우승함으로써 올림픽 육상 3연속 3관왕이라는 전인미답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개인 통산 올림픽 금메달 수를 9개로 늘려 1920년대 장거리 선수로 활약한 파보 누르미(핀란드), 전설적인 육상선수 칼 루이스(미국)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리우올림픽 기간 중 한국 스포츠계에 큰 경사가 생겼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유승민(34·삼성생명 코치)이 리타 하이데만(독일), 다니엘 쿼타(헝가리), 예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된 것. IOC 선수위원은 임기 8년 동안 IOC 위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총회에서 결정하는 각종 사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올림픽 종목 결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등 국제 스포츠계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6

박근혜 대통령 리우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 리우올림픽 선수단 초청 오찬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5일 2016 리우올림픽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투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선수단 모두가 국민께 큰 감동을 줬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의 선배인 유승민 코치는 하루에 3만 보를 걸어 다닌 열정과 성실함으로 당당하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당선됐다”며 “여러분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긍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저력과 아름다운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라며 “정부는 그동안의 많은 대회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선수들과 함께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받고 올림픽 하이라이트 영상을 시청했다. 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비인기 종목의 설움을 딛고 ‘한국 올림픽 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둔 근대 5종의 김선우 선수가 리우올림픽 성화봉을, 펜싱 종목에서 역전의 드라마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가 펜싱 투구와 펜싱검을 기념품으로 박 대통령에게 각각 전달했다.

‘리우에서 평창으로, 희망! 도전! 영광!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199명의 선수단과 유승민 IOC 선수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310여 명이 참석했다.

올림픽 정신 보여준 그대가 진정한 영웅

메달의 색깔, 승패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17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2016 리우올림픽은 보는 이의 가슴을 환희와 감동으로 뜨겁게 달궜다. 진종오(37·KT)는 50m 공기권총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3연패라는 대역사를 썼다.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첫 메달을 따낸 여자 유도 정보경(25·안산시청)은 153cm의 작은 체구로 당당히 세계 2인자의 자리를 꿰찼다. 남자 탁구팀의 만형 주세혁(36·삼성생명)은 세계 최강 중국과 겨루면서도 무엇이 올림픽 정신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다. 감동의 주인공들에게서 올림픽의 못다 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사격 | 진종오

“6점대 실수에 ‘나를 위해 즐기며 운동해야겠다’고 다짐”

“사격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3연패, 게다가 세계신기록을 세웠다는 게 아직까지도 실감이 안 납니다. 리우올림픽은 제 생애 가장 부담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을 갔다 온 느낌이지요. 브라질에 가기 전부터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심했습니다. 어떤 타이틀이 걸려 있는지 스스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주위의 기대가 크니 저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런데 10m 공기권총에서 5위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50m에서도 아홉 번째 발에 6.6점을 쏘는 실수를 하고요. 긴장을 너무 많이 한 탓입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집중하자, 집중하자’ 하고 되뇌었습니다. 다행히 금방 평정심을 되찾았습니다.

사실 사격에서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하는 선수가 결국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게 사격의 묘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국민들께 그 묘미를 제대로 알려드렸네요. 진종오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드리고요(웃음).

실수를 하면서 ‘아,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격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위한 사격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주위의 시선이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고 즐기면서요.

아직 은퇴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음 도쿄올림픽에도 꼭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맘껏 훈련할 수 있도록 선수들에 한해 총기 규제가 꼭 완화되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사격의 발전과 사격의 대중화에 이바지할 생각입니다. 자서전을 내서 사격을 배우고자 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제 훈련법도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은 며칠 뒤 열리는 국내 대회를 앞두고 훈련을 하기 위해 집을 싸고 있습니다. 그 이후엔 취미로 즐기는 낚시나 스쿠버다이빙을 하며 좀 쉬고 싶네요.”

유도 | 정보경

“강해 보이려 염색? 스피드·근력만으로 충분히 강해”

“저에게 리우올림픽은 스물다섯에 첫 출전한 올림픽이자 4년을 기다린 무대입니다. 거기서 따낸 은메달은 무척 가치가 큼니다. 결승전에선 ‘진짜 마지막이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자신 있게 공격을 걸었죠. 경기가 끝난 후 4년 동안 운동하면서

힘들었던 게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은메달에 대한 아쉬움은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열리기 전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는 믿고 있었어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약해지고 굳히기 기술이 약한 게 단점이었는데,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훈련한 덕에 경기력도 많이 향상된 터였죠. 체구는 작지만 작기 때문에 덩치 큰 외국 선수들보다 스피드에선 자신 있었습니다. 근력도 절대 뒤지지 않죠. 발끝 훈련이나 턱걸이 훈련도 남자 선수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노랗게 물들인 머리를 보고 강해 보이며 한 거냐고들 물으셨는데 이진 그냥 예뻐 보이려고 한 겁니다.

8강전에서 세계랭킹 1위 문크흐바트 우란체체그(몽골) 선수를

만난 건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역대 전적 완패에다 매년 같은 기술로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거든요. 올림픽에선 세계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맞붙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제 공격에 당황했는지 상대 선수가 손으로 다리를 잡는 반칙을 했죠. 결국 제가 이겼습니다.

며칠간의 휴가가 끝나면 10월에 있을 전국체전 준비에 들어갑니다. 올림픽 메달은 잊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할 겁니다. 자만하는 게 선수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더욱이 유도는 예를 중시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도 올림픽 메달을 따 포상금도 받고,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돼 무척 기쁩니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어릴 적 꿈에 한발 더 다가선 느낌이라서요(웃음)!”

탁구 | 주세혁

“아쉽게 놓친 동메달, 열정과 간절함 배운 시간”

“이번 대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국가대표 무대였는데 멋지게 마무리하지 못했네요. 탁구 대표팀이 2014년 아시안게임,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까지는 성적이 괜찮았는데 올림픽은 정말 어려운 무대인 것 같아요. 부담감이 엄청나고 상대도 준비를 많이 하니깐요. 그래도 국민들이 많이 성원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기 드문 수비 전문 선수로 ‘깡신’이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수비형 선수는 불리한 게 아니냐 하시는데 계속 공을 받아쳐내면 상대를 긴장시키고 조급하게 만들 수 있죠. 다만 구질을 파악해야 하는 경기 초반에는 고전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독일과의 동메달 결정전 단체 2단식 경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두 세트를 내준 뒤 다시 두 세트를 따낸 상황에서 역전을 못 시킨 게 아직도 아쉽지만 합니다.

선수로는 많은 나이지만 체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는 물리치료와 재활훈련이 아주 중요한데 협회와 소속팀에서 지원을 워낙 잘해주었습니다. 4년 전 런던올림픽을 앞두고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을 얻어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경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이상수 선수에게 단식 출전권을 양보한 이

유는 노장보다는 젊은 선수에게 훨씬 가치가 큰 무대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노장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이전부터 이런 고민을 많이 해 세계선수권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올림픽이 첫 출전인 이상수, 정영식 선수와 단체전을 치르면서는 잊고 있던 열정, 간절함을 배웠습니다. 전 ‘독설가’였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만요(웃음).

이제 국가대표 자리는 내려놓습니다. 돌아보면 2003 세계선수권대회 준우승, 2012 런던올림픽 단체전 은메달은 가장 큰 성공이었습니다. 탁구계의 침체 위기 속에서도 4년을 더 끌고 지금까지 온 것에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가대표는 실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명감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전향은 신중히 결정할 생각입니다. 한동안은 선수로서 좀 더 남아 있고 싶습니다.” G



메달보다 ‘땀과 열정’ 우린 리우에서 감동을 보았다

동영상



1 2016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개인전에서 역전 드라마로 금메달을 목에 건 박상영 선수의 경기 모습.
2 2016 리우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구본찬 선수가 금메달을 확정 지은 뒤 두 손을 치켜들고 있다.



동영상

이대현 |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만약 리우올림픽에서 세계 1위인 선수들이 모두 금메달을 땀 땀? 아마 아무런 재미도 감동도 없었을 것이다. 지구촌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와 화합의 마당이 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지도, 모든 나라 국민이 자국 선수들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것도 이미 정해진 1등이 늘 1등을 하는 세상에 대한 풍자다. 그런 세상이라면 누가 꿈을 꾸며 살겠는가. 세상이 그렇다면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없다.

예상대로 각 종목에서 세계 1위인 선수들이 실력 그대로 많은 금메달을 땀. 육상의 우사인 볼트가 그랬고, 수영의 마이클 펄프스가 그랬으며, 중국의 탁구가 그랬다. 1등만이 늘 1등을 하는 세상. 재미없다. 희망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은 삶에는 '기적'이 있고, 기적은 아니더라도 '이번'이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야말로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보여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약자가 강자를 꺾는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고, 감정이입으로 그 속에서 삶의 용기와 희망

을 발견한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도 그랬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1위 선수가 예상대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이 아니었다.

물론 자메이카 육상선수인 우사인 볼트의 올림픽 3연속 3관왕, 미국 수영선수 펄프스의 올림픽 메달 기록 경신도, 진종오의 사격 3회 연속 금메달도 그 뛰어난 기량과 꾸준한 자기관리와 노력의 결과여서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로지 자신을 믿고 투혼으로 1위를 꺾고 승리를 차지한 선수의 메달에 우리는 더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다.

펜싱 남자 세계랭킹 21위 박상영

‘할 수 있다’ 정신으로 역전 드라마

우리 국민은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국 선수로 펜싱 남자 에페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헝가리의 계자 임레를 극적으로 꺾고 금메달을 딴 박상영을 꼽는다. 그가 리우올림픽 출전 한국 선수 중 최다 트윗이 된 것이 이를 말해준다. 누구도 세계랭킹 21위인 그가 금메달까지 파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더구나 결승에서 계

자 임레에게 밀려 1점만 더 잃으면 패하는 상황에서 그가 전세를 뒤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자신을 믿었으며, 비록 하위 랭킹이지만 그동안 흘린 땀과 열정을 모두 쏟아 부었다. 그가 한점 한점 따라잡을 때마다 혼잣말로 반복했던 “할 수 있다”가 “해냈다”가 되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서 나를 보았고,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았고, 우리 국민을 보았다.

그의 “할 수 있다”는 사상 첫 남녀 양궁 개인·단체전 석권의 마무리를 맡은 구본찬의 흔들리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주었고, 한국 선수들의 대미를 장식해준 여자 골프 박인비의 바람 앞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샷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세계 1위가 아니었기에 그곳을 향해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며 훈련하고, 집중했으며,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믿었다.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승리에 기뻐하면서 우리는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거나 이번이 찾아오기를 한 번쯤 바란다.

기적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땀과 노력이 준 선물

기적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 그들의 극적인 승리도 행운이 아니라, 자신의 땀과 노력이 준 선물이다. 기적은 인간이 만든다. 마이클 루이스의 소설 <머니볼>은 믿음이야말로 기적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가장 가난한 구단, 모두가 2류라고, 한물갔다고 하는 선수들로 구성된 오كل랜드 애슬레틱스가 미국 프로야구 사상 전무후무한 20연승이란 대기록을 세운 것도 단장인 빌리의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선수들의 장점을 소중히 살렸고,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갔고, 끝까지 기다려주었으며, 선수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도록 용기를 북돋워주었다. 그 믿음은 선수 자신들의 믿음으로 이어져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휘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는 없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그 변화가 곧 ‘기적’이다.

베넷 밀러 감독이 브래드 피트 주연으로 영화로도 만든 ‘머니볼’은 야구 이야기가 아니다. 야구를 통해 인생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이야기한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경기에서, 그들의 환희와 눈물에서 나를 보고 인생을 본다. 거기에는 우리는 미처 몰랐던 나 자신도 보고, 깨닫지 못한 삶도 알고, 세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부르는 이유다.

각본이 없기에 누구도 정해진 역할이 없으며, 누구도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그래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으며, 어떤 역을 맡더라도 소중하다. 성공만 있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듯, 승자만 있는 스포츠도 스포츠가 아니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고, 패자가 있어야 승자도 있다.

삶도 드라마도 그렇듯 스포츠 역시 패자의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기도 한다. 그들에게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있고,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정정당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믿으며 열정을 바친 결과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4위에 그쳐 꿈에도 그리던 메달은 못 땀지만, 손연재가 리듬체조에서 보여준 연기는 그 어떤 영광보다 자신을 향한 ‘최고’의 존중이었으며, 남녀 탁구선수들의 온몸을 던진 투혼 역시 어느 메달보다 값진 그 속에서 ‘또 하나의 꿈과 희망’을 발견했다. 그런 자기 존중과 꿈이 없다면, 그보다는 오로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만을 추구하고, 승리를 최상의 가치로 여긴다면 스포츠도 올림픽도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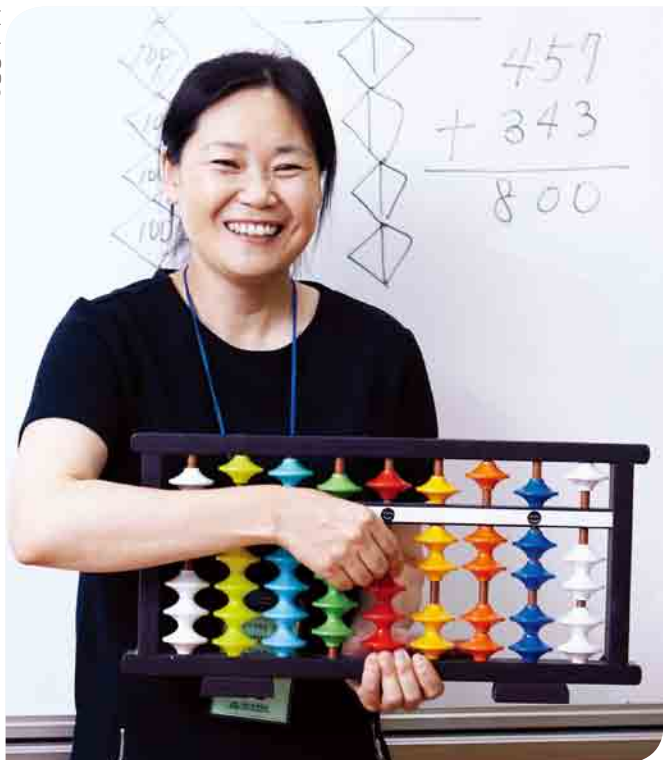
세상도 그럴 것이다. 오로지 1등만 바라고, 1등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사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1등만이 최고가 아니며, 1등이 아니라도 긍정의 힘으로 기적을 만들고, 비록 패했지만 땀과 열정에서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국민들 가슴에 각인시켜준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 메달 몇 개, 종합 몇 위를 떠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하다. **6**



주산강사로 12년 만에 외출, 두 아이 엄마 김성훈 씨

“용기는 더하고, 두려움은 빼고 주산같이 아이들 가르쳐요”

©홍중식 기자



고교 시절 익힌 주산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한 김성훈 씨. 그는 “먼저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려야 세상이 내게 응답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 위클리 공감 기자

● “7 더하기 7이오, 빼기 8이오...”

강사가 낭랑한 목소리로 숫자를 쫓 읽어 내려가자 학생들이 ‘딱딱’거리며 주판알을 올렸다 내렸다 했다. 계산이 끝나면 약속이나 한 듯 엄지와 검지로 주판알을 째 털었다. 학생들이 주판알을 튕기는 이 장면, 추억 속 흑백사진에 나오는 주산학원의 풍경이 아니다. 2016년 8월 23일 경기 광명시 철산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에서 진행된 방과 후 학교 주산반의 수업 장면이다.

주판이 전성시대를 열었던 1980년대와 지금, 다른 게 있다면 단 하나. 학생들이 나무 주판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플라스틱 주판을 사

용한다는 점이다. 스마트 세대로 불리는 요즘 아이들은 1980년대 아이들처럼 신발 밑에 주판을 달고 스케이트를 타지 않았다. 대신 책상에 앉아 안전하게 주판알을 손으로 튕겼다. 주판을 만지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놀이’이자 ‘학습’인 듯했다.

방과 후 학교 주산반 강사인 김성훈(45) 씨는 “전자계산기의 보급으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던 주산이 10년 전부터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놀이수업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며 “1988년 상업고등학교에서 주산을 배울 때만 해도 ‘주판알을 다시 튕기는 날이 올까’ 싶었는데, 주산강사로 활동한 지 올해로 8년 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09년부터 주산강사로 활동했다.

고교 시절 익힌 주산, 직장생활 때 활용 못 해 경력 단절 극복하고자 20년 만에 주판 꺼내

학창 시절 김 씨는 수학이 아니라 체육수업을 좋아하는 소녀였다. 초등학교 때는 육상선수로, 중학교 댄 핸드볼선수로 활동할 만큼 운동에 소질이 있었다. 운동신경이 뛰어난 그를 두고 주변 친구들은 “활동적인 일을 하면 잘할 것”이라고 했다. 그 자신도 훗날 운동선수가 될 줄 알았다.

김 씨의 다음 행보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던 탓에 운동 대신 취업을 해야 했고, 상고로 진학했다. 김 씨는 그때 주산을 처음 접했다. 다행히 그는 산수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주산 계산식을 금방 익혔다. 김 씨는 “우리 반에서 주판알을 가장 잘 튕기는 학생이었다”며 웃으면서 말했다.

김 씨는 상고 졸업 후 출판사 경리부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주판을 잡을 일이 없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회계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더 이상 주판알을 튕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주산과 김 씨의 인연이 그렇게 끝나는 듯했다.

1997년, 김 씨는 결혼과 동시에 5년간의 직장생활을 정리했다.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그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학부모가 되면서는 각종 학부모 모임에 적극 참가했는데,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들 중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

모가 있었어요. 학생 한 명이 ‘엄마가 일을 하고 있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요’라고 말하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불현듯 ‘나도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초등학생이 된 아이들이 오후 늦게까지 학원에 있자 김 씨에게 ‘시간’이 생겼다. 처음으로 맞는 자신만의 시간, 어색했지만 반가웠다. 이 시간을 활용해 무언가를 하면 좋을 듯했다.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됐다. 오래전 일했던 경리 업무라면 해매지 않고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를 위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기업들이 경리직원을 대줄 사원이 아니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그에게 큰 부담이었다.

퇴짜 각오하고 주산수업 제안서 제출... 수업 기회 얻어

“먼저 세상 향해 문 두드려야 세상도 내게 응답”

그러던 어느 날, 지역신문에 게재된 광고가 김 씨의 눈에 띄었다. 2008년 11월 서울 강서구청이 시민대학을 개설했는데, 수강과목 중에 ‘주산’이 있었다. 김 씨는 고교 시절 접했던 주산과의 인연을 되새기며 수강신청서를 작성했다.

“당시 주산이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는 놀이학습으로 떠오르면서 재평가를 받는 분위기였어요. 주산강사의 수요가 늘어날 것은 자명했습니다. 그동안 틈틈이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하면서 터득한 요령을 활용하면 학생들에게 주산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김 씨는 20년 만에 장롱 속에 깊이 넣어뒀던 주판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학생으로 돌아간 그는 고교 시절처럼 신나게 주판알을 튕겼다. 그때 그의 실력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강의를 맡았던 주산협회 간사였다. 그는 김 씨에게 주산암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로 활동하면 어떻겠느냐고 권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주산 2급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머리를 싸매고 앉아 시험 준비에 돌입했다. 결과는 합격.

김 씨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서울 소재 수학교육원 강사 자리를 소개받았다. 하지만 그 자리는 김 씨에게 맞지 않는 옷이었다. 밤

10시 훌쩍 넘어 수업이 끝나는 터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떴던 김 씨로서는 맥이 탁 풀려 버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다.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으로 삼기로 했다.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현장을 찾아가 몸소 부딪쳐야 했습니다. 주산수업 제안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해야 하는데, 퇴짜 맞을까봐 두렵더군요. 한번 용기를 내니까 교무실 문턱 넘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때 세상의 문을 두드린 덕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잘하고 싶었다. 김 씨는 체계적인 수업을 위해 학업을 병행하기로 결심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청소년학과)에 진학해 상담자격증,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보통 수학 교과목에 주산을 적용해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보드게임이나 체스 등 놀이학습을 추가로 활용해 주산암기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학습 몰입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뛰어날 것 같았어요.”

김 씨는 시간을 투자해 자신만의 교수법을 만들었다. 보드게임과 체스를 배우며 놀이학습의 폭을 넓힌 것이다. 김 씨의 수업 방식은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방과 후 학교 주산수업 요청이 이어진 것이다. 김 씨는 현재 두 곳의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도서관에서 주산수업을 진행한다.

고교 시절 접한 주산으로 경력 단절을 극복한 김 씨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용기’라고 말한다. 열린 마음으로 나를 세상에 던져야 세상이 내게 응답한다는 것이다.

“주산강사로 활동하면서 만났던 동료 중에는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활동하지 않아요.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부끄러워도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려야 해요. 그래야 세상이 내게 응답을 합니다.” **6**

주택임대관리사·드론조종사·닥터세프...

미래 유망 신직업 선정해 키워니다



정부는 미래 신생 직업 가운데 하나로 드론조종사를 꼽는다. KT 드론레이싱팀 기가파이브 소속 김민찬 선수가 9월 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예술 융합전' 전시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정부는 2013년부터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직업 발굴 및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외국 직업과의 비교·분석 및 산업 전망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신직업을 발굴하고, 이 직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확산되도록 육성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015년 12월에 '제2차 신직업, 신생 및 이색 직업' 100가지를 선정했다. 더불어 '2030 국민이 직접 뽑은 미래 유망 바이오 관련 직업' 10가지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26일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페스티벌에서 이 가운데 63개를 공개하고 홍보에 나섰다. 정부는 이들 직업의 근본적인 제도 변경이나 기존 직업군·이해 관계자 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직업을 소개한다.

저금리 시대에 뜨는 전문직, 주택임대관리사

저금리로 월세가 늘어남에 따라 임대업자가 직접 임대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임대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증가할 전망이다. 주택임대관리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체결 절차 등을 대행하고, 임대인을 대신해 공인중개업자와 상대하는 일을 한다. 주택 임대와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무와, 정액의 월세를 약정하고 공실이나 미납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자기관리형 주택 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임대관리사는 주택임대관리회사, 시설관리회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업체에서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도 주택 임대 관리 분야에 뛰어들면서 관련 기업으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주택임대관리사가 되려면 임대 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 주거 환경 관련 지식 등을 갖추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학과 전공자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소지자를 선호한다.

같은 상품도 다르게 소개한다, 상품·공간 스토리텔러

최근에는 커피숍이나 음식점 등이 단순히 음료나 음식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친밀한 장소, 책과 문화가 있는 장소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소설 <해리포터>는 영화, 테마파크, 게임, 완구 등 분야로 진출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 같은 상품·공간 스토리텔링은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광고, 게임,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스토리텔러는 스토리텔링 전문업체, 광고회사, 게임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한데 대부분이 프리랜서로 근무한다. 순수 학문인 국문학을 전공하는 게 유리하며 마케팅, 경영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역별 문화산업진흥원,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콘텐츠

츠진흥원 등에서 진행하는 스토리텔러 교육 등을 받는 것도 좋다.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사창작과, 강원대 스토리텔링학과 등에서 스토리텔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와 한류를 결합하다, 의료관광경영 컨설턴트

2009년 5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국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의료관광경영컨설턴트는 의료관광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전략적 마케팅 방법, 국제보건법 등 법률적 쟁점 사항, 종교 및 인종적 쟁점사항 등을 컨설팅한다. 이들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의료관광 에이전시, 의료관광 전문 병원 등에서 활동한다.

대학에서 의료 관련 학과, 관광 관련 학과 등을 전공하면 업무 수행에 유리하다. 채용 시 의료관광 분야, 의료 및 관광 관련 경력자, 외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심) 활용 업무 기능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병원 해외 진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의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농업부터 택배까지 넘본다, 드론조종사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 전파 유도에 의해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드론조종사는 지상에서 원격으로 인공지능 항법장치를 통해 비행체, 지상 통제장비, 통신장비 등의 표준화된 시스템을 운영하고 통제한다.

드론은 농업에서부터 산림, 군사, 물류, 재난 구조, 영화산업 등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한 업체에서는 드론 택배 실증사업을 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드론 시장이 2030년까지 1조6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민간에서도 드론의 활용도가 부쩍 늘면서 관련 업체에서 드론조종사를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하나, 향후 주요 군수·방위산업체들은 2020년부터 드론 관련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채용이 활

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드론조종사로 일하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실습 20시간, 이론 20시간의 교육 비용은 700만~1000만 원 수준이다.

맛있게 먹는 약 스마트하게 개발한다, 닥터세프

닥터세프는 고객의 몸 상태에 따른 맞춤 의약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전문가다. 고객이 원하는 맛의 약을 음식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섭취하도록 해준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당뇨, 고혈압 등 환자들이 편안하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분자 형태의 의약식품을 개발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개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므로 체내 이식형 스마트 바이오 센서나 바이오 스탬프(피부에 붙이는 센서) 등을 활용한다. 닥터세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지만 지금보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스마트 의학이 발달하는 2030년에는 신직업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보인다. **G**

미래 유망 신직업

구분	주요 직업
정부 육성 지원 신직업	1 정부 육성·지원 신직업 기업재난관리자, 의약품인허가전문가, 주택임대관리사, 레저선박시설(마리나)전문가, 대체투자전문가 등 2 시장 인프라 구축 필요 직업 방재전문가, 미디어콘텐츠창작자, 3D프린팅운영전문가, 상품·공간스토리텔러, 진로체험코디네이터 등 3 민간의 자생적 창출 신직업 개인간(P2P)대출전문가, 의료관광경영컨설턴트, 크루즈 승무원 등 4 중·장기 검토 과제 문신아티스트 등
신생 및 이색 직업	1 첨단 미래를 이끄는 직업 창작자에이전트, 모바일광고기획자, 게임레벨디자이너, 온라인결재서비스기획자 등 2 건강한 삶을 돕는 직업 모낭분리사, 식생활지도사,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드론조종사, 창업보육매니저 등 3 이색 직업 귀농귀촌플래너, 스포츠통역사, 웹툰기획자 등
2030 세대가 뽑은 미래 유망 바이오 직업	수술용나노로봇조종사, 닥터세프, 헬스닥터, 헬스테크디자이너, 러닝메이트, 스마트VR렌즈삽입 안과 의사 등

자료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자살 예방 ‘괜찮니 캠페인’ 추진

“괜찮니?” 삶을 이어주는 그 한마디

©중앙자살예방센터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지난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6600여 명. 이 가운데 사망에 이른 사람은 523명이다. 자해,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심리부검 결과에 따르면 자살 사망자의 93.4%가 자살 전 경고 신호를 보였으나 유가족의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예방에 있어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 이웃, 동료 등 주변인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 이유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괜찮니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괜찮니 캠페인은 주변인에게 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서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다. 캠페인은 손글씨 엽서를 통해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캠페인’, 동영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공중에 키스 세리모니를 하는 ‘에어키스(Air Kiss) 캠페인’, 자살 문제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전국 릴레이 ‘괜찮니? 플래시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체통 캠페인은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도 쑥스러워서 미처 말을 건네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손글씨 엽서를 통해 관심을

표현하도록 마련했다. 지난 5월 연세대와 서강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해본 결과 참가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업 성적과 취업난에 지친 친구에게 힘을 줄 수 있어서 기뻐다”(언론홍보영상학부 4학년 정재욱), “평소 아무리 친해도 부끄러워서 하고 싶은 말을 못 할 때가 많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전소담, 사회복지대학원)는 등의 반응이다.

손편지로 ‘괜찮니’ 안부 물기 큰 호응

플래시몹, 전쟁 때보다도 많은 사망자 수 문제 환기

에어키스 캠페인은 영상을 통해 안부를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에어키스로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는 액션 릴레이다. 에어키스 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고 대상을 해시태그하는 방식이다.

에어키스 캠페인에는 손봉호 기아대책 이사장, 강지원 변호사와 스포츠 지도자인 이랜드FC U-15 최태욱 감독 등 유명인사가 먼저 동참했다. 최태욱 감독은 “제가 안부를 묻고 싶은 사람은 이영표 형, 요즘 캐나다 왔다 갔다 하는데 잘 지내고 있나요? 이천수, 요즘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만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만나고 싶습니다!”라며 메시지를 전했다.



1 전북 익산역 앞에서 진행된 '괜찮니 플래시몹'. 2 동영상으로 안부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공중에 키스 세리모니를 하는 '에어키스(Air Kiss) 캠페인'. 3 손글씨 엽서를 통해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는 '우체통 캠페인'.

플래시몹은 거리나 광장, 기차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집단행동을 말한다.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는 괜찮니 플래시몹은 자살을 상징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서로에게 희망을 북돋우는 노래와 댄스로 구성된다. 행인인 양 거리를 지나가던 참가자들이 동시에 길에 쓰러지면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자살 사망자가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의 사망자보다 많다는 내용이다. 플래시몹은 한강 세빛섬, 전북 익산역 등에서 진행됐다.

플래시몹에 참여한 홍성이(42·주부) 씨는 “음악과 율동이 서로에게 힘과 격려를 주는 느낌이 들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장혜진(12·학생) 양은 “댄스가 신나고 중독성이 있어 즐겁게 할 수 있었고, 다음 기회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플래시몹에 나오는 자살 예방 음악 ‘괜찮니, 괜찮아?’는 그룹 V.O.S의 박지현, 탤런트 임성언 등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8월 19일 오픈한 누리집 ‘괜찮니.com’을 통해 진행된다. 누리집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등 SNS와 연계돼 있어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괜찮니 엽서 쓰기와 에어키스 캠페인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다. 향후에는 ‘괜찮니 송’ 등 음원, 편지지, 엽서 등 홍보물을 내려받을 수 있다. **G**

인터뷰 | ‘괜찮니’ 캠페인 기획 유현재 서강대 교수

“자살은 사회적 타살, 국민 모두 자살 예방 지킴이 돼야”

중앙자살예방센터 운영위원장 유현재 서강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자살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부족이 자살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자살하거나 유명인이 우울한 시기에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내용을 마스크에는 가감 없이 내보낸다. 자살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살을 자신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자살을 쉽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 마스크의 영향은 매우 강해서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자살을 자신의 선택지에 넣는 계기가 된다.”

유 교수는 이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한 프랑스 사회학자 뒤르케임의 말을 인용하며 자살은 주변의 관심만으로도 크게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중년 남성의 자살률이 높아지자 ‘아빠 제대로 자고 있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울증 등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가족에게 이같이 안부를 물어봄으로써 자살률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보았다. 핀란드는 유명인의 자살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를 막기 위해 미디어에서 자살이란 단어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 우리나라도 자살 문제를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괜찮니 캠페인은 호주의 ‘아 유 오케이(Are you okay)’ 캠페인을 참고로 했다. 캠페인을 기획한 유 교수는 “직접적으로 자살을 언급하지 않고 ‘괜찮니?’라는 친근한 인사말만으로도 이웃의 자살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축제기간에 우체통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은 SNS를 통해 친구들과 연락을 잘하고 지낼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깊은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었다. 에어키스 캠페인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SNS를 통해 유행한다면 자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홀몸노인을 찾아가 안부를 묻는 사업을 진행해 노인 자살률을 낮춘 사례가 있다. 자살 전 징후로는 갑자기 ‘고마워’ ‘미안해’ 같은 말을 하거나 자주 눈물을 보이는 것 등이 있다. 주변 사람들의 이 같은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국민 모두가 자살 예방 지킴이가 될 수 있다.”



©유현재

'기록인의 올림픽' 2016 세계기록총회 9월 5~10일 서울 개최 디지털 시대 '기록 한류' 새 지평 연다

국가기록원



1



2

국가기록원

1 9월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기록총회' 행사장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가상 장면 2 2016 세계기록총회 성공 기원 D-100일 기념행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가운데)이 총재관(실록 편찬 총책임자)으로 조선시대 봉과 의식을 재현하고 있다.

김가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세계 스포츠인의 행사인 올림픽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기록인의 모임이 막을 연다. 오는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16 세계기록총회'가 그것이다. '기록, 조화와 우애(Archives, Harmony and Friendship)'라는 주제로 미래 정보자원인 기록 관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과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0여 개국 대표단을 비롯해 관련 기구, 학계, 산업계 등에서 총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세계기록관리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ICA)는 유네스코 산하 3대 문화기구 중 하나로 1948년 창립된 세계 최대 기록 관리 국제기구다. 세계기록총회는 세계기록관리협의회가 주관하는 기록 분야 최대의 국제 행사다.

〈훈민정음〉·〈조선왕조실록〉 등 세계기록유산 보존체계 발표 기록 관리 분야 수출 시장 개척 위한 산업전 마련

총회기간 동안에는 국제회의와 특별 강연, 250여 편의 학술 발표, 특별 세션 등의 주요 행사와 함께 산업전, 기록 전시회, 기록문화 탐

방 등도 마련된다.

메인 행사인 학술회의에는 63개국에서 심사를 통과한 246건의 논문이 발표된다. 우리 정부의 전자기록 관리체계에 관한 논문과 세계기록유산 보존체계 및 콘텐츠 활용 관련 논문이 발표된다. 분단국가 극복을 위한 독일연방기록원의 역할,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관한 일본기록관의 미래 등을 연구한 논문도 눈에 띈다.

우리나라의 전통 기록문화와 전자기록 관리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특별 세션도 마련된다. 특별 세션을 통해 세계기록유산의 보존체계는 물론 전자정부, 정부3.0, 정부 및 민간의 전자기록 관리체계를 알릴 예정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은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만큼 전통 기록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록전에는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13건이 복제본 또는 이미지, 영상 등으로 소개된다. 6·25전쟁과 휴전까지의 과정,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발전사,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등을 담은 사진과 문서 등도 전시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우리나라의 〈훈민정음해례본〉과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의궤〉, 〈일성록〉,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등 13건이 등재돼 있다. 건수로 보면 세계 4위, 아시아 1위에 해당한다.

기록 관리 분야의 선진기술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산업전도 마련된다. ▶전산·전자기록 분야 ▶시청각기록물 분야 ▶종이·행정박물 분야 ▶시설·환경·보안 분야 등 4개 분야로 구성된 산업전에는 삼성전자, 구글, 소니, LG 등 국내외 기록 관리 관련 48개 업체가 참여해 90개 부스를 운영한다. 행정자치부와 국회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독립기념관 등 24개 공공기관도 75개 부스를 차려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우수한 기록 관리체계를 홍보한다.

‘서울 선언’으로 디지털 기록문화 이끌어

앞선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기록 한류’ 열여갈 것

폐막식에서는 사라지는 디지털 기록에 대해 회원들의 국제 협력을 다짐하는 ‘서울 선언’이 채택될 예정이다. 서울 선언은 디지털 시대에 기록 관리 이슈에 세계 기록인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 개발 및 연구개발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선언을 통해 산업, 사회,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록 축적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국내의 관람객이 한국의 전통과 기록문화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마당이 대표적이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인 사초를 작성하던 사관이 돼 보는 사관 체험, 한국의 다양한 전통 문양을 한지에 찍어보는 탁본 체험, 국새 찍어보기, 전통 제본과 매듭 만들기 등 한국 문화 학습이 병행된 행사로 구성됐다. 자세한 사항은 2016 세계기록총회 누리집(www.ica2016.com)을 참고하면 된다.

이번 서울 총회는 우리나라 기록 관리의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선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전자기록 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록 한류’를 열여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행사를 우리나라의 문화융성과 위상 제고는 물론 기록과 관련된 한류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대통령기록관, 관람객 10만 명 돌파



세종시 다솜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전경.

대통령기록관이 일반에 공개된 지 6개월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개관 초기에는 대통령기록관이 위치한 세종시 및 인근 지역 시민과 학생들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전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찾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경로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 시청각 기록, 역대 대통령들이 사용하던 행정박물, 각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 등 총 1900만 건의 기록물이 소장돼 있다. 주요 소장물은 대통령 서명 헌법, 대통령 서한, 각종 대통령 선언문 및 정상회의 자료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전시관뿐 아니라 기록물을 보존·처리·복원·복제할 수 있는 9개의 처리실도 갖춰져 있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종교계에서도 오래된 종교기록물의 보존·복원처리와 관리에 관심을 갖고 견학을 오는 등 대통령기록관은 우리나라 보존·복원 교육의 메카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아울러 9월 1일에는 ‘대통령기록 기획전’, 11월 7일에는 ‘세종 민속문화의 해 특별전’을 개막해 관람객들에게 좀 더 흥미롭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화~일요일(월요일 및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겨울철 오전 10시~오후 5시)로 입장료는 무료다. 해설 안내는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기록 시대에 한국의 기록이 주목받고 있는데 서울 세계기록총회를 통해 이를 부각시키고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우리나라는 2004년 박물관총회(ICOM), 2006년 도서관총회(IFLA)에 이어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3대 문화총회를 모두 개최하게 된다. **G**

오리백숙·충북 보은

길 따라 음식 따라
가을은 맛있다

가평 닭갈비

평창 메밀

증평 인삼

영주 청국장

보은 오리백숙

원주 꽃감

창원 아귀찜

무안 낙지

장흥 표고버섯

©노리추사시프롬



닭갈비·경기 가평

‘국민 대표 보양식’인 닭 요리는 지방과 단백질뿐 아니라 뇌졸중, 치매 예방 등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이 풍부하다. 특히 닭가슴살에 풍부한 비타민B6는 신장 결석의 형성을 막고 손저림은 물론 야간 근육경련, 다리저림,

수족마비 등을 예방한다.

복잡한 도심을 잠시 벗어나고 싶을 때, 이 닭갈비로 유명한 경기 가평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먹음직스러운 숯불 닭갈비를 가평 어느 지역에서나 즐길 수 있고 남이섬, 아침고요수목원 등 근처 관광지도 다양하다. 특히 가평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아홉마지기마을은 용추 계곡이 있는 마을로 숲이 아름답다. 숲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자연 식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다.

추천 지역 경기 가평 ‘아홉마지기마을’

여행 코스 자나라인(집와이어)-전통순두부닭갈비-이화원-자라섬-가평 레일바이크-아홉마지기마을

추천 체험 수목산양올림피아드 체험, 숲해설 체험, 잣목걸이 만들기 체험, 목공예 체험 등

문의 031-582-3115 / www.9majgi.co.kr



아귀찜·경남 창원

아귀는 생김새와 달리 효능 면에서는 팔방미인이다. 저지방 생선으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단백질이 풍부해 필수아미노산 보충에도 효과적이다. 성장 발육, 피부 건강에도 탁월하다고 알려졌다. 단백질 맛이 일품으로 주로 찜

이나 매운탕의 재료로 이용된다. 특히 아귀찜에는 무가 빠지지 않는 데, 무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효소가 아귀의 소화를 돕고 비타민C를 보충해준다.

경남 창원시 마산은 아귀찜길이 따로 있을 만큼 아귀찜으로 유명한데, 건아귀를 전통 방식으로 요리해 타 지역 아귀찜 요리와 차별성을 갖고 있다. 아귀찜길에서 아귀찜을 맛봤다면 근처의 둔덕마을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창원의 가장 오지마을로 험한 산과 시원한 계곡, 저수지로 둘러싸여 있어 강원도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다. 슬로푸드 요리 체험, 땅콩 수확 체험 등 다채로운 농촌 체험도 즐길 수 있다.

추천 지역 경남 창원 ‘둔덕마을’

여행 코스 진해 용원어시장-김씨박물관-해양공원-흑백다방-마산 아귀찜길-양촌권역 한우·주물럭거리-둔덕마을

추천 체험 슬로푸드 요리 체험, 들깻잎김치 만들기 체험, 땅콩 수확 체험, 천연 비누 만들기 체험 등

문의 010-2402-6228 / www.dunduck.com

낙지·전남 무안

스테미나 음식으로 잘 알려진

낙지는 단백질,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고 철분도 가득해 빈혈 예방에 좋다. 낙지에 많이 든 타우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간세포의 재생을 도울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정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 같은 효능 덕에 ‘갯벌에서 나는 인삼’이라고도 불리는데, 전남 무안은 발이 가늘고 긴 세발낙지가 잡히는 국내 최대의 낙지 산지로 꼽힌다.

연간 관광객이 14만 명에 달하는 무안은 청정 갯벌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직접 잡은 낙지로 연포탕을 끓여 먹으며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우수 농촌 관광체험마을인 인근의 월선마을에서는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농촌의 정취를 엿볼 수 있다. 이 밖에 호담항공 우주전시장, 화산 백련지, 초의선사 탄생지 등 대표 관광지를 둘러보며 ‘남도 한 바퀴’를 돌아보자.

추천 지역 전남 무안 ‘월선마을’

여행 코스 호담항공우주전시장-화산 백련지-오송우미술관-초의선사 탄생지-월선마을-무안생태갯벌센터

추천 체험 떡케이크 만들기 체험, 머그컵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문의 061-452-5556 / www.worunsun.co.kr



인삼·충북 증평



16세기 후반에 서양에 알려진 인삼은 ‘동양의 보물’로 통한다. 화장품의 성분 재료로도 쓰일 만큼 다방면에서 효능을 인정받아 온 인삼의 주요 성분은 사포닌. 사포닌을 이루는 진세노사이드는 학습과 기억력에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세포 수를 증

가시키고 뇌신경을 보호해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고려 인삼의 폴리사테렌 성분과 진세노사이드 Rh2는 중앙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외에 간 보호와 항암 작용, 당뇨 개선, 빈혈 회복에도 좋다고 알려졌다.

매년 가을이면 증평인삼골축제를 개최하는 충북 증평은 인삼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특히 증평 인삼과, 인삼을 먹여 키운 홍삼 포크가 유명하다. 증평 정안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하기 좋은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가능하니 함께 둘러보면 좋다.

추천 지역 충북 증평 ‘정안마을’

여행 코스 정안마을-보강천체육공원-증평 인삼상설판매장, 충북 인삼유통센터-홍삼포크 전문판매장

추천 체험 천연염색 체험, 두부 만들기 체험, 인절미 만들기 체험, 나전칠기 체험, 장승 만들기 체험 등

문의 043-838-8228 / www.jungangol.co.kr

꽃감·전북 완주



가을 과일의 대표주자인 감은 성숙도에 따라 단감, 홍시, 꽃감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감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A, 타닌, 칼륨, 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고혈압 예방에 좋다. 특히 꽃감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기침과 가래 완화에 효

능이 있다고 전해져왔다.

꽃감 산지로 유명한 전북 완주에 가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꽃감을 맛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는 매년 가을 꽃감축제를 열어 관광객을 맞고 있다. 근처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포 군락지인 창포마을이 위치해 있는데, 깨끗하게 보존된 산림과 하천, 각종 희귀 수생식물이 서식해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추천 지역 전북 완주 ‘창포마을’

여행 코스 고산 소시장-고산 연휴양림-고산문화공원-창포마을-대아수목원-대아관광농원

추천 체험 창포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 천연염색 체험 등

문의 063-261-7373 / www.changpovil.com

표고버섯·전남 장흥

버섯은 항암 성분(테터난) 등 면역 활성화 물질이 들어 있는 건강식품이다. 특히 쓰임새가 무궁무진한 표고버섯은 암 예방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풍과 고혈압, 뇌졸중 등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 식이섬유 또한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다. 말린 표고버섯에는 칼슘 흡수를 촉진해 치아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비타민D2가 함유돼 있다.



전국 마른 표고 생산량의 48%를 차지하는 전남 장흥은 표고버섯의 대명사로 불린다. 기온이나 습도, 일조량, 참나무 생육 상태 등이 표고 재배로는 최적지다. 아울러 장흥 장수풍뎡이마을에서는 버섯 재배용 참나무 폐목에 서식하는 장수풍뎡이를 사육하며 친환경 마을로 통한다. 이곳에서 청국장을 만드는 과정과 다양한 자연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추천 지역 전남 장흥 ‘장수풍뎡이마을’

여행 코스 장수풍뎡이마을-정남진 토요시장-우드랜드-이청준 소설문학길

추천 체험 풍뎡이 관찰 및 먹이주기 체험, 목공예 체험, 물총 만들기 체험, 표고버섯 수확 체험 등

문의 010-3110-6145 / www.장수풍뎡이체험마을.kr



청국장·경북 영주

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음

식 중 하나다. 각종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암, 당뇨, 비만, 고혈압, 변비, 빈혈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좋아 특유의 냄새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참고로 청국장에 열을 가하면 효소가 파괴되므로 익히지 않고 생청국장으로 먹는 게 가장 좋다. 청국장찌개를 끓일 때는 다른 재료들을 먼저 넣고 맨 나중에 청국장을 넣어야 효소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북 영주는 청국장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지역 특산물인 부석태(흰콩)를 이용한 청국장과 콩 요리를 맛보러 오는食客들이 많다. 이곳의 공세계과학관에서는 매월 두 차례 ‘콩 핸드메이드 & 로컬푸드 프리마켓’이 열리니 방문한 김에 프리마켓도 둘러보자.

추천 지역 경북 영주 ‘한밤실마을’

여행 코스 소백산자락길-소수서원-선비촌-부석사-한밤실마을-공세계과학관-요선재-녹색농심인삼 농촌체험마을

추천 체험 사과 따기 체험, 두유 만들기 체험, 냄새 없는 청국장 만들기 체험, 순두부 만들기 체험 등

문의 054-637-7080 / www.greenfarm.com

메밀·강원 평창

7~10월에 개화하는 메밀은 약용과 식용으로 모두 쓰일 만큼 버릴 게 없는 식물이다. <동의보감>에는 메밀이 비·위장의 습기와 열기를 없애주며, 소화가 잘되게 하는 효능이 있어 일 년 묵은 체기가 있어도 메밀을 먹으면 내려간다고 기록돼 있다. 메밀의 핵심 성분인 루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뇌혈관 장애를 방지하며 혈압을 낮춰준다. 특히 혈당치를 안정시키고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어 당뇨 환자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이기도 한 강원 평창 봉평은 메밀의 본고장이다. 전국에 다양한 메



밀 생산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봉평 메밀의 맛은 미식가들도 인정할 정도. 특히 매년 9월 봉평메밀축제와 효석문화제 등이 열려 이때쯤 관광객들이 가장 많다.

추천 지역 강원 평창 봉평 ‘효석문화마을’

여행 코스 허브나라-봉평전통시장(메밀음식거리)-이효석문학관-봉평메밀막걸리양조장-무이예술관

추천 체험 메밀꽃 액세서리 체험, 도자기 만들기 체험 등

문의 033-330-2771 / tour.pc.go.kr

보리·제주

보리에는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무기염류 등이 골고루 들어 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아미노산이 많아 혈관의 노화를 방지하고 각기병을 예방하며 위장을 보호한다. 또한 동맥 경화를 비롯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흔히 보리 하면 보리밥을 먼저 떠올리지만 제주 아홉굿마을에서는 이 지역 주요 농산물인 보리로 만든 피자과 수제비가 인기가 높다. 직접 만들고 먹어보는 보리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아이들이 보리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건 어떨까.

추천 지역 제주 ‘아홉굿마을’

여행 코스 아홉굿마을-신창몽차해안도로-성감대건표착기념관-차귀도 배낚사-수월봉 지질트레일-모슬포항

추천 체험 보리피자·빵 만들기 체험, 농산물(파프리카, 토마토) 수확 체험 등

문의 064-773-1946 / ninegood.go2vl.org

농촌 체험 정보...

가족과 함께 농촌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대한민국 농촌관광 누리집 ‘우리나라좋은마을(웰촌, www.welchon.com)’을 방문해보자. 각 지역의 다양한 농촌 관광자원이 연계된 농촌 체험휴양마을 정보가 총망라돼 있다. 이 밖에 계절별, 월별 테마를 선정해 농촌 체험휴양마을 주위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을 추천하고 있으니 농촌 지역 관광에 관심 있는 도시민들은 즐겨찾기를 해놓자.



내 손으로 꾸미는 사무실 책상 ‘데스크테리어’

열심히 일하는 당신도 ‘사무실 힐링’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 사무실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책상을 자신만의 공간으로 꾸미는 ‘데스크테리어’가 인기를 끌면서부터다. 데스크테리어는 데스크(Desk)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직장인들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을 제2의 생활공간으로 인식한 데서 시작됐다. 데스크테리어를 즐기는 이들은 단순히 책상을 정리정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좋아하는 예쁜 캐릭터 제품들을 비치해 개성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반려식물로 칙칙한 사무실 분위기를 전환한다. 최근에는 컴퓨터 USB 전원에 연결할 수 있는 미니 공기청정기나 생수기 같은 아이디어 제품들도 데스크테리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꾸미기에 관심이 없는 남성들도 피규어를 모아 집 대신 책상 위에 두고 자랑한다.

그렇다고 많은 물건을 무작정 책상 위에 두고 배치하는 것이 데스크테리어는 아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용 빈도와 중요도, 활용도에 따라 적절히 배치하고,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어수선했어 보이지 않도록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과중한 업무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겪고 있다면 데스크테리어로 마음을 달래보자. 집이나 사무실 전체를 꾸미는 인테리어와 달리 책상 한쪽의 좁은 공간을 꾸미는 데스크테리어는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다.

저렴한 사무용품으로 업무 효율 Up!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책상 중심에 배치하고, 부수적인 도구들은 사이드에 배치하는 것이 정리의 핵심이다. 이때 인테리어 수납용

품을 활용하면 깔끔한 데스크테리어가 가능하다. 온라인에는 몇천 원 대로 구입할 수 있는 저가 생활용품 브랜드의 제품을 활용해 책상을 꾸미는 방법을 공유하는 누리꾼들이 많다. 벽걸이 네트는 데스크테리어족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다양한 수납통과 사무용품을 그물에 건 뒤 파티션 벽면에 붙이면 책상 위가 깔끔해진다. 파티션과 대비되는 색상의 네트를 선택하면 인테리어 포인트를 주기에 딱! 사무용품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변신하는 순간이다. 여기에 그물에 걸 수 있는 소품 한두 가지를 추가하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시스템 박스는 수납하는 물건을 종류별로 정리해 놓고, 물건 이름을 박스에 적어놓으면 된다. 크기가 작고 디자인이 튀지 않아 네트보다 깔끔해 보인다. 이 위에 거울이나 피규어, 가족사진 같은 걸 놓아두면 사무용품이 아닌 장식함처럼 연출할 수 있다.

반려식물로 힐링 스페이스 만들기

삭막한 사무실 안에 초록빛의 작은 식물 하나만 들어와도 분위기는 확 달라진다. 식물은 공기를 정화하고 산소와 습기를 공급할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준다. 녹색식물을 3분간 바라보면 눈물막 파괴 시간이 연장돼 안구건조증을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무실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로는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다육식물이 단연 최고다. 최근에는 실내조명만으로도 잘 자라는 테이블야자, 흙과 물 대신 미세먼지를 먹고 자라는 에어플랜트(공중식물)도 직장인의 반려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유리그릇 안에 작은 식물과 인형 피규어를 함께 넣어 키우는 테

라리움은 숲속에 작은 세상이 펼쳐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한다. 화분 색상과 재질을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고르고, 색깔을 입힌 돌을 장식하는 것은 분위기를 더 화사하게 만드는 팁! 이 같은 반려식물은 온라인 오픈 마켓 등을 이용하면 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더욱이 사무실로 바로 배송할 수도 있으니 직장에서도 손쉽게 식물 키우기를 시작할 수 있다.

최신 전자기기로 시크하고 세련되게

디자인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최신 IT 제품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책상 분위기를 연출하기에 그만이다. 굳이 다른 장식을 더할 것 없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인테리어 소품이 된다. 게다가 스마트폰도 가능하게 해주니 데스크테리어 아이템으로는 더할 나위 없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스타일 연출에는 흰색, 검은색이나 메탈 소재가 적합하다. 태블릿 PC나 스피커, 휴대폰 거치대와 충전기, 헤드셋 등을 이 같은 색상이나 소재로 통일성 있게 배치하면 시크해 보인다. 이들 용품이 주는 차가운 느낌을 덜고 싶다면 가죽이나 나무로 된 기기 한두 가지를 곁들이면 좋다. 가죽으로 된 패드나 나무무늬 휴대폰 거치대 하나만 놔둬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다만 전자기기로 책상 위를 꾸밀 때에는 너무 많은 아이템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너무 많은 전자기기는 오히려 어수선하고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또한 되도록 무선기기를 활용하면 책상 위가 훨씬 깔끔해지고 더욱 세련돼 보인다.

개방형 사무실은 색깔 포인트로 깔끔하게

최근에는 전체 책상이 파티션 없이 이어져 있는 개방형 사무실이 늘어나는 추세. 이 경우 한쪽만 지나치게 개성을 강조해 책상을 꾸민다면 외부에서 보기에 깔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더 유연한 로테이션 업무 처리를 위해 설계된 책상이 소용없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옆자리 동료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때는 한두 가지 소품이나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센스가 필요하다. 분홍이나 빨강처럼 사무실에서 보기 힘든 색상의 데스크패드, 마우스 패드, 스탠드나 필기도구로 포인트를 주면 깔끔하면서도 은근한 개성이 드러나는 책상이 된다. 독특한 색깔을 사용할 때는 사무실 전체 색상과 보색인 것을 사용하면 깔끔하다. 꽃무늬, 도트무늬, 줄무늬, 별 모양 등 패턴을 활용한 장식품을 배치하면 좀 더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된다. 다만 깔끔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세 가지 이상의 색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귀여운 캐릭터 제품으로 사무실에 활력을

귀여운 캐릭터는 보고 있기만 해도 절로 미소를 짓게 한다. 아이의 감성과 취향을 가진 성인을 일컫는 이른바 ‘키덜트’가 많아지면서 캐릭터를 활용한 사무용품도 시중에 널리 판매되고 있다. 마우스 패드, 휴지 케이스, 텀블러, 펜꽂이 등 사무용품 한두 가지만 캐릭터 제품으로 바뀌



도 손쉽게 책상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컴퓨터 USB 포트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미니 선풍기와 발풍기, 가습기, 휴대폰 충전기, 스탠드 등 기능성과 디자인 요소를 겸비한 아이디어 상품들은 보고만 있어도 재미가 있다.

이 밖에 좋아하는 캐릭터 한 가지로 책상 전체를 꾸미거나 한 가지 테마의 여러 피규어를 모아 장식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줄음이 밀려오는 점심시간에는 나노블럭을 조립해보자. 직접 데스크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뿌듯함마저 든다. **6**

예산정책

중화학공업에 뿌린 예산 근대화 열매로 이젠 복지에 눈돌려 미래 대비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책에 따라 울산석유화학단지(왼쪽)가 조성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사회복지가 강조되며 관련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

김병희 |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전 한국PR학회 회장

●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 예산을 배분하는 정책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김선혁과 정재동, 정태현은 ‘우리나라 제1~3공화국의 예산 정책 변화 과정 분석’(2007)이라는 논문에서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 예산정책의 시기를 변화기, 선택·유지기, 투쟁기로 구분했다. 정책 발전의 단계를 변화, 선택, 유지, 투쟁 같은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 시기까지의 예산정책의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시대 구분은 설득력이 높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 예산정책의 뿌리와 줄기들을 살펴보자.

예산정책의 변화기(1948~53)에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재정제도가 확립된 이후, 한국 정부와 미 군정 사이에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 1948년 9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후 1951년 9월 24일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뿌리에 해당되는 ‘재정법’이 공포되었다.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었다.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도의 우리나라 예산은 1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열악한 형편이었다.

예산정책의 선택·유지기(1953~61)에는 경제 재건의 필요성과 그에 필요한 통화 관리가 예산정책의 지향점이었다. 1955년 2월 정

부조직법을 대폭 개정해 기획국을 폐지하고 부흥부(復興部)를 신설했으며, 예산국은 재무부로 이관되었다. 재정법은 두 차례 개정되어 1961년 12월 ‘예산회계법’이 제정될 때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 예산 편성의 준거가 되었다.

회계연도를 변경함에 따라 1955년에는 18개월이라는 최장 회계연도를 기록했고, 그에 따라 1956년도는 우리나라 재정사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특이한 경우도 발생했다. 1955년 9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 전문가 회의에 참가하고 돌아온 우리나라 대표들은 예산 개혁과 내용의 근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즉, 기능과 경제 특성에 따라 예산을 재분류하고, 정부 기업에 기업회계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 정부 부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예산정책의 투쟁기(1961~70년대 말)에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국이 재무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 발전이라는 확고한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국가 예산을 운영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발점인 1962년에 정부는 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개혁을 시도하며, 중화학공업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배분했다. 국가기획제도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1962년에는 교통·체신·전매 분야의 공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심의하고 있다.

기업에 기업회계 예산제도를 도입해 경영 합리화를 시도했으며, 각종 특별회계제도를 신설해 특별회계사업이나 특정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는 중화학공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개발에도 많은 예산을 할당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예산정책에 역점을 두었지만,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예산의 편성을 가장 우선시했다. 예산정책의 투쟁기에는 대체로 경제 안정, 국방력 강화, 농어촌 개발, 중화학공업 육성, 수출 촉진, 연구개발에 국가 예산이 집중되었다.

중화학공업, 국방, 경제, 복지 순으로 우선순위 변화

박근혜정부 들어 사회복지 예산 100조 원 넘어서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비롯해,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 산업 지원 같은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예산정책이 추진됐다. 1982년에는 모든 국가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보고 검토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예산심의회'를 도입했다. 이 시기에는 전체 예산에서 국방 예산이 이전의

30%에서 20%대로 감소했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이 시작돼 정보화 사업 분야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다.

1990년대에는 지방 재원 확충과 교육 같은 사회 분야의 예산 지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경제 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정책이 유지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에 발맞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을 확대했다. 특히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교통세를 신설했으며 SOC에 대한 예산 배분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도 국가 과학기술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렸다. 199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가고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금융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부문에 많은 국가 예산이 할당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과 성장 잠재력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예산정책은 경제 분야에서 복지 분야로 대상이 서서히 전환되었다. 그렇지만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2010년 이후에도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56조 원에 불과하던 사회복지 예산은 박근혜정부 들어서 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의 총 예산 386조4000억 원 중에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이 122조9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예산정책은 시대 상황의 변화에 발맞춰 중화학공업, 국방, 경제, 복지 순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왔다고 할 수 있다. 1960~1970년대에 뿌린 중화학공업 예산이라는 씨앗이 국가 근대화 와 경제 발전이라는 열매를 맺었다면, 그 번영의 바탕 위에서 이제 복지 예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성장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국가 재정의 편성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줄 실효성 있는 예산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G**

9월 1일부터 대장금과 함께 ‘경복궁 별빛야행’

궁궐의 일상 체험, 뜻깊은 시간 여행

대한문화재단



1 연못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다운 경회루의 야경. 2 소주방에서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인 도습수라상.

박새별 | 위클리 공감 기자

● 선선한 바람이 모두의 마음을 여유롭게 만드는 가을밤, 왕의 초대로 잠들었던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이 다시 깨어난다.

문화재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대장금과 함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궁중음식 체험과 전통 공연, 경복궁 야간 해설 탐방이 결합된 행사로, 품격 있는 궁궐 문화 콘텐츠를 좀 더 다양화하고 일반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먼저 궁궐의 부속인 소주방에 들러 왕과 왕비의 일상식인 수라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도습수라상’을 맛보게 된다. 소주방은 경복궁에서 음식을 조리·보관·제공하던 곳으로 약 100년 만에 복원돼 지난해 5월 일반에 개방됐다. ‘도습’은 도시락의 옛말로 조선의 왕이 먹던 일상식인 12첩 반상을 도시락으로 구성해 관람객들이 도시락을 먹으면서 궁궐의 일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궁중음식 체험을 마치면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왕비의 휴식공간이자 공식적인 업무가 이뤄졌던 교태전, 왕실 여성들의 마음의 쉼터 아미산 굴뚝, 후궁의 거처였던 함화당과 집경당을 둘러본다. 특히 경복궁 야간 특별관람 때도 공개되지 않았던 향원정과 집옥재 등 경복궁의 후원(대궐 안의 동산)도 함께 살펴보고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 평소 관람이 자유롭지 않았던 경회루 누상에 오른다. 그곳에

서 관람객들은 달빛을 받아 연못에 비친 경회루를 감상하고 경복궁의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수려한 음식의 대금 독주를 즐길 수 있다.

도습수라상·대금 독주 등

다양한 경복궁 궁중 체험 기회 마련

경복궁 별빛야행은 9월 1일을 시작으로 휴궁일(매주 화요일)인 6일, 13일을 제외하고 17일까지 하루 두 차례(오후 6시 30분, 7시 50분), 1일 120명(회당 6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사전 예매는 옥션(ticket.auction.co.kr)을 통해 8월 19일부터 한 사람당 최대 4장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화 예매(1566-1369)도 함께 진행한다. 참가비는 한 사람당 5만 원이며 장애인 1~3급(동반 1인)과 4급 이하(본인), 국가유공자(본인)에게는 50%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김나연(학생·24) 씨는 “궁중도시락도 맛보고 궁궐에서 궁중음악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니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다. 가족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기에 좋은 기회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도되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2011년부터 시작돼 매회 매진을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창덕궁 달빛기행’과 함께 대표적인 궁궐 야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관람객들이 경복궁만이 지닌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

만성질환, 9월부터 동네의원이 통합 관리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9월부터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환자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대면진료 사이에 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혈압·혈당 정보를 관찰하며, 월 2회 이내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로 계획 수립 및 평가, 지속 관찰·관리, 전화 상담 행위에 대한 수가 책정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환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 대상

정부, 전담팀 꾸려 세부 기준 마련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가지고 있던 기존 의료기기를 우선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기가 없거나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일부 환자층(고령자 등)에게는 무선 통신용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열어 시범사업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참여 희망 의료기관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진행한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해 시범사업 세부 기준 및 관련 소프트웨어(SW) 등을 공동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의원급 1차 의료기관이 사업 주체가 되게 하는 등 1차 의료 살리기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작업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월 초 참여기관이 최종 선정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관련 정보 시스템 사용방법 등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 매뉴얼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강의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G**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개요

1. 환자 등록	2. 계획 수립	3. 지속 관찰	4. 전화 상담	5. 점검 및 평가
인적 사항, 질환 정보 등록	환자 만성질환 관리계획 수립	환자 생체정보(혈압·혈당) 관찰·분석	필요시 전화 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대면진료 시 치료지침 조정 및 평가

만성질환 시범사업 관련 Q&A

Q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 중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줄일 수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Q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는 무엇을 하나

A 블루투스 혈압·혈당측정기를 대여한 환자는 측정된 생체 정보를 모바일 앱 ‘건강보험M’에 전송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환자는 웹사이트 ‘건강 IN’에서 수동 입력해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한다.

Q 무선통신용 혈압·혈당계는 어떻게 대여하나

A 참여의원은 환자의 질병 상태와 연령층, 기존 장비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해 환자가 의료기기를 대여할지, 아니면 기존 의료기기를 사용할지를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Q 혹시 의료 정보가 누출되지는 않는가

A 혈압·혈당 수치를 입력·전송하는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M건강보험’과 환자용 웹사이트 ‘건강 IN’은 철저한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하며,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등 엄격한 보안 규정에 따라 구축된다.

Q 환자별 관리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평가하나

A 환자별 혈압·혈당 관리 목표치와 측정 주기를 설정해 관리계획에 포함한다. 이 밖에도 환자별 생활습관 위험요인, 약물 복용 내용, 필요 검사 항목 등이 포함되며 결과지를 출력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Q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으로 어떤 혜택이 있나

A 지속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동네의원에서는 만성질환자를 좀 더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고, 환자는 동네의원에서 잘 아는 의사에게 자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고 상담할 수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을 한층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고온다습 기후 농산물 관리법

농산물 곰팡이 독소 주의!



고온다습한 날씨에 곡류나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하려면 습도 60% 이하, 온도 10~15℃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

김민주 | 위클리 공감 기자

● 최근 우리나라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월 24일 “쌀, 두류, 땅콩 등 농산물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보관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핀 곰팡이는 인체에 유해한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 독소를 생성할 수 있어 농산물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곰팡이 독소는 주로 고온다습한 기후를 가진 열대지역 또는 아열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나 독소의 종류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지역 등에서도 발생한다.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생성되는 독소에는 아플라톡신, 파툴린, 푸모니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논 등이 있다. 특히 아플라톡신 B1은 강력한 발암(간암) 물질로서 268℃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는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농산물을 안전하게 보관·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습도 60% 이하, 온도 10~15℃ 이하에서 보관

곰팡이 독소는 가열해도 완전히 제거 안 돼

곡류나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 이하에서 최대한 온도 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곰팡이의 성장과 독소 생성은 수분 함량 20~25%, 상대습도 70~90%, 온도 22~30℃에서 활발하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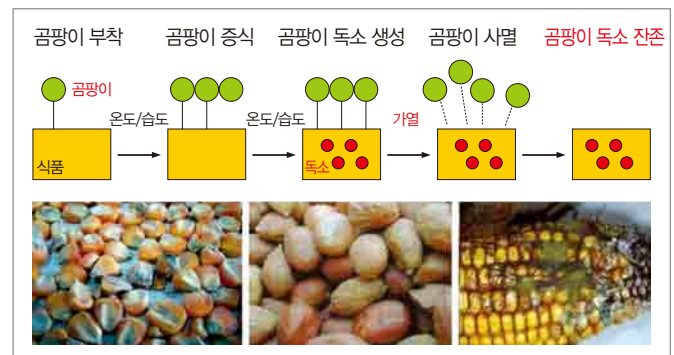
주방은 습기가 많아 비가 온 후에는 보일러를 가동해 건조시키거나 에어컨, 제습기 등을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음식물쓰레기통이나 개수대도 소독제 등으로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쌀, 아몬드 등 곡류나 견과류의 알갱이가 벌레에 의해 손상되면 식품 내부의 수분 균형이 깨져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따라서 손상된 알갱이는 제거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 땅콩, 호두 등 견과류는 개봉 후 남은 제품이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해 보관한다. 옥수수나 땅콩 등 수확물을 보관할 때에는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껍질을 벗겨 보관하는 것보다 안전하며, 껍질에 곰팡이가 핀 곡물은 빨리 제거해야 한다.

곰팡이 독소는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도 강하다. 곰팡이는 세척 또는 가열하면 제거되지만, 독소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생강은 곰팡이가 핀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독소가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 곰팡이가 핀 부분을 도려낸다 해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쌀을 씻을 때도 파란색 물이나 검은 물이 나오면 곰팡이 오염을 의심하고 먹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계절·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농산물에 대한 곰팡이 독소 검사를 강화하고, 농산물 안전관리 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곰팡이 발생 및 독소 생성 과정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세 플라스틱 환경오염과 유해 논란

알갱이 치약보다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

©shutterstock



치석 치약에 함유된 미세 플라스틱은 정화시설에 걸러지지 않고 독성 물질의 매개체가 될 수 있어 미국에서는 내년 7월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김기영 | 위클리 공감 기자

●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각질제거제나 치석 치약에는 작은 알갱이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바로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라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이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은 지름 5mm 이하의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생산 당시부터 작게 제조된 '1차 미세 플라스틱'과 큰 플라스틱이 풍화 작용 등에 의해 마모되거나 쪼개져서 작아진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나뉜다. 이 중 각질제거제, 치약 등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마이크로비즈는 1차 미세 플라스틱에 속한다.

마이크로비즈는 각질 제거와 세정용으로 각종 화장품은 물론 치태 및 치석 제거용 치약에도 사용된다. 작은 알갱이가 피부 또는 치아 표면에 닿으면서 때를 벗기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이크로비즈가 들어간 치약이나 세정제를 사용하면 묵은 노폐물이 제거된 듯한 개운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이 알갱이의 주성분이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 같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이다. 즉 물에 녹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부서지지도 않는다. 게다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

큼 작기 때문에 정화시설에 걸러지지 않은 채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 등의 먹이가 된다.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7월 발표한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보고서를 보면,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 생태계의 기초인 동물성 플랑크톤에서부터 갯지렁이, 새우, 게, 가재, 작은 청어는 물론 대구와 참다랑어 등의 대형 어류에 이르는 다양한 생물종에서 발견됐다. 바다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고 있을 뿐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자석처럼 유해물질을 끌어당기는 성질도 갖고 있어 바다에 잔류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물고기가 다시 우리의 밥상에 올라와 결국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네덜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유럽 5개국은 유럽연합(EU) 전체에 마이크로비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최근 영국과 대만도 마이크로비즈를 규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2017년 7월부터 치약을 포함해 물로 씻어내는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에 마이크로비즈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마이크로비즈' 들어간 각질제거제·치석 치약 No

천연팩·곤약 스펀지·올바른 양치질 습관 Yes

미세 플라스틱의 대체 성분을 사용하고 싶다면 호두 껍데기 가루,オート밀 등 천연 유기물질을 넣은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레몬, 포도, 사과 등에서 얻어지는 아하(AHA)나 바하(BHA) 등의 성분이 든 화학적 각질제거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극세사로 된 세안용 장갑이나 곤약으로 만든 스펀지도 각질 제거 등에 효과적이다. 흑설탕을 사용한 팩(흑설탕 2 : 꿀 1, 흑설탕 3 : 물 5 : 오일 2)이나 곡물 가루를 활용한 스크럽 등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좋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려면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양치질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다. 한 치의학 박사는 "치약은 치아 건강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며 "어떤 치약을 쓰느냐보다 제대로 된 칫솔질과 입안을 깨끗하게 행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6**

피부 닭살... 강렬 ‘심쿵’ 스트레스의 신호탄

김창엽
자유기고가

● “아~ 닭살!”

두 눈 뜨고 보기 힘든, 혹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연인이나 부부 등의 행동을 접하면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닭살이란 사람들의 피부에 돋는 소름 모양이 마치 털을 벗겨냈을 때 닭의 피부를 연상시킨다 해서 생겨난 말이다.

소름은 엄밀히 말하면 현대인에게는 거의 필요치 않은 신체 반응 현상의 하나다. 불필요하다는 건 소름이 돋는 게 우리 몸에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신체 반응은 사람이 의식하든 않든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기침을 예로 들면 가래 같은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식이다.

그러나 진화생물학자들에 따르면 소름은 인류의 조상들에겐 불필요한 신체 반응이 아니었다. 소름 돋는 게 쓸모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생리적으로 소름은 체모, 즉 피부에 난 털의 뿌리 부분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뭔가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털이 쭈뼛 선다’는 말을 하는데, 머리카락을 곧추세우는 힘은 다름 아닌 모근 부위의 미세한 근육이 수축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털이 많았던 인류의 조상들에게 소름이 돋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누웠던 털들이 일제히 일어서니 덩치가 평소보다 커 보였을 것이다. 소름이 상대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신체 반응이었다는 뜻이다. 지금도 고슴도치 같은 몇몇 동물은 털을 세워 상대에게 겁을 준다. 또 털들이 일어서면 털 사이에 공간이 생겨 보온 효과가 유발된다. 단열 성능이 뛰어난 공기가 털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니 피부는 추위를 덜 났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인은 인류 조상에 비하면 털이 없다시피 한 생명체로 진화했다. 털을 세워 실제적으로 득을 볼 게 거의 없어진 셈이다. 그럼에도 마치 엉덩이 상부에 자리한 꼬리뼈의 흔적처럼 소름은 신체 반응의 흔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데 소름은 극단적으로 예외적인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인위적으로 돌아나게 할 수 없다.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나 반대로 성적 흥분, 추위 등의 자극이 아니면 소름은 생겨나지 않는데 이는 의도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의 일종이다.



©shutterstock

인체에서 닭살이 가장 흔히 돋는 부위는 동서양 사람을 가리지 않고 팔뚝이다. 왜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팔뚝에 닭살이 쉬 돋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닭살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인다는 건 어쩌면 현대인이 적잖은 스트레스를 접해야 하는 일상을 살고 있다는 뜻으로 뒤집어 해석될 수도 있다. 사실 닭살이라는 말 외에도 ‘심쿵’ 등의 유행어가 널리 사용되는 이면에는 스트레스 환경이 자리한다. 그러니 소름이 자주 돋는다는 건 우리 몸과 정신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소름을 가리켜 닭살이라 하지 않고 흔히 ‘거위살(Goose Bump)’이라고 부른다. 대체로 서양인들이 털이 많고 땀구멍이 커서 닭 대신 거위를 동원한 표현을 썼을 수도 있다. 닭살은 이 밖에 문화권에 따라 ‘새살(일본)’, ‘오리살(아랍)’ 등 이런저런 조류의 털 뽑힌 살을 묘사하는 말로 대체된다. 하지만 닭살로 불리든 다른 조류의 이름을 따서 불리든 소름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물론 아니다.

인체에서 닭살이 가장 흔히 돋는 부위는 동서양 사람을 가리지 않고 팔뚝이다. 왜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팔뚝에 닭살이 쉬 돋는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다만 충격적인 상황을 맞거나 갑작스러운 황홀경에 빠져 소름이 돋았다면 심중팔구 팔뚝 부위이므로 확인이나 목격이 쉬운 점은 있다. 소름이 돋거나 심쿵 하는 건 상당한 에너지 소모하는 반응이다. 가능하다면 피해야 할 일이다. **6**

세계의 동물원 시대를 담았네

김성희
북칼럼니스트

● 동물원! 사자며 악어, 기린 등 이국적인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 회전목마 등 환상적인 놀이기구들을 즐길 수 있는 곳. 한때는 창경원의 또 다른 이름인 줄 알았던 곳. 중·장년들에겐 향수를 자아내는 이 말을 요즘은 듣기 힘들다. 동물보다는 롤러코스터며 플러라이드 등 이름도 낯선 신기한 놀이기구들이 주역인 ‘놀이공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 책은 어쩌면 시대의 퇴물이 돼가는지도 모르는 세계 곳곳의 동물원을 다녀본 여행기다. 대만의 소설가가 2012년부터 2년間に 걸쳐 14곳의 동물원을 답사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캐냈다. 그러니 흔히 말하는 ‘테마 여행기’인 셈인데 당연히 주제에 관한 깊은 이야기가 담겼다.

프랑스 파리식물원 안에 있는 동물원은 시민의식의 요람 역할을 했다. 1789년 대혁명 이후 베르사유 궁전의 동물들은 수난을 겪어야 했다. 급진주의자들은 말과 소 등 ‘쓸 만한 동물’만 남겨두고 원숭이 등은 피혁상에 넘겼다. 쓸모도 없고 처리하기도 난처한 동물들은 표본이나 만들라고 파리식물원에 보냈다. 세계 최초의 공공동물원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맹수의 비유, 기르는 방식, 예산과 인력 등 동물원을 둘러싼 끝없는 논쟁 속에서 사회 안전과 권익의 문제에 눈을 떴다.

“1941년 첫 번째 폭탄이 떨어졌다. 총 764대의 영국 전투기가 날아와 폭탄을 떨어뜨렸다. 동물원도 이미 초토화되었다. 3715종 가운데 살아남은 동물은 사자 두 마리, 하이에나 두 마리, 아시아코끼리 한 마리, 코뿔소 한 마리 등 모두 91마리뿐이었다.”

서베를린 동물원이 겪었던 일이다. 명소를 찾아 사진 찍기에 바쁜 겉핥기 관광객들로선 모두 떠올리기 어려운 이야기다.

여기에 사이사이 너구리, 토끼 등 동물에 관한 글이 담겨 읽는 맛을 더한다. ‘사랑에 빠진 실버백 고릴라’가 그중 하나다. ‘실버백’은 무리 중 가장 강한 성년의 수컷 고릴라를 뜻한다. 열두 살이 되면 등의 털이 은백색으로 변하는 데서 나온 이름이다. 2007년 네덜란드 로테르담 동물원의 ‘보키토’란 실버백 고릴라가 우리를 뒤흔쳐와 한 여성을 공격해 중상을 입혔다. 한데 이 여성은 일주일에 평균 네 차



동물원 기행

나디아 허 지음 | 남해선 옮김 | 어크로스 | 408쪽 | 1만7000원

레나 보키토를 찾아와 우리를 사이에 두고 ‘교감’하던 사이였다 해서 화제를 모았다. 결국 고릴라의 공격을 견뎌낼 정도의 내구성과 강도를 뜻하는 ‘보키토프루프(Bokito-proof)’라는 말이 그해 네덜란드 최고의 유행어가 됐다고 한다.

‘지식을 통한 저항의 상징(베이징 동물원)’, ‘느림의 미학을 체득하는 공간(몽펠리에 동물원)’ 등 다양한 동물원이 등장하지만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 것은 지은이의 글솜씨다. 동물과 여행을 다룬 온갖 영화와 동화와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작가이니 그렇다 쳐도 동물원을 둘러싼 온갖 역사적 맥락에 대한 설명들을 보면 ‘아, 정치학을 공부했는지’ 하는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

베이징 교외에 자리 잡은 야생동물원인 바다링 동물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대가 곰도 아닌데 춤추는 곰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어찌 안단 말인가?”라는 장자(莊子)의 말을 꺼낸다. 그러면서 “(인간에 의해 길들여진) 춤추는 곰도 기분 좋을 때가 있다. 심지어 웃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나는 춤추는 곰들에게서 비할 데 없는 슬픔을 본다. 춤추는 곰은 모두 사슬에 묶여 있으니”라고 마무리한다. 단순한 여행 에세이를 넘어서는 책이라 권하는 이유 중 하나다. **G**

사막을 건너는 법

● 사막에서는 방향을 가늠하기가 힘들다. 모든 것이 메말라버린 모래사막에는 이정표나 랜드마크가 없어, 겨우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살피거나 밤하늘의 북극성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요즘 나는 더위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느낌이 간혹 든다. 오랜 폭염으로 도시가 사막처럼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이정표가 있고, 사거리가 있고, 남향집들이 있지만,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태양 아래에서 사막에 서 있는 기분이다. 이러한 육체의 고통은 정신과 직결되어 있다.

연재소설 마감 원고 교정지가 왔지만 건성으로 봐서 보내고 말았다. 문장을 보는 집중력이 떨어져 도대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리를 부탁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기사가 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에어컨을 뜯어서 해당 회사 앞에 갈 힘도 없다. 에어컨이 고장 났으니 전기로 폭탄은 안 맞겠다 싶어 위안을 삼는다. 참 한심한 일이다.

며칠 전 실크로드를 답사하고 돌아온 후배가 사진 몇 장을 보내왔다. 사막의 풍경을 담은 사진에 눈길이 간다. 그가 '사막에서 살아 돌아온 줄 알았는데 찌죽오리 들어온 것 같네요.' 하고 간단한 메시지를 달아 보냈다. 요즘 우리나라는 사막보다 폭염이 더하다. 콘크리트와 도로, 철로 만들어진 도시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간 요즘 나는 가끔 사막을 떠올린다. 이 더위를 버티게 해주는 용기를 사막에서 얻는다. 일종의 아날로지(유추) 효과라고나 할까. 사막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시인들이 노래하고 어린 왕자가 다녀간 곳이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사막이 각박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시적 은유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신경림 시인의 '낙타'를 읽어보자.

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 모래밖에 본 일
이 없는 낙타를 타고 / 세상이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체 / 손
저어 대답하면서, /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 누군가 있
어 다시 세상에 나가랴한다면 /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 별

원재훈
시인

과 달과 해와 / 모래만 보고 살다가, /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
았는지도 모르는 /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길동무 되어서.

노시인은 당신의 저승길을 낙타를 타고 가고자 한다. 저승길까
지는 몰라도 현실을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낙타와 같다. 낙타의
큰 눈과 눈썹은 사막의 모래를 건지기 위한 진화(용불용설)의 결과
다. 낙타의 눈을 자세히 보면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다. 두더지나 생
쥐와는 다른 눈이다.

낙타는 운명적으로 사막의 고통과 슬픔을 잘 보게 태어났다. 낙
타가 사막을 건너는 법은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들이
이 여름을 건너는 법도 따로 없다. 그저 낙타처럼 하루하루 터벅터
벅 걸어가는 수밖에.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곳이 아프리카나 사하라사
막이 아니기에 낙타는 인생의 은유일 뿐 현실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낙타처럼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차라리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그래야 용기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오아시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혹시 오랜
가뭄에 말라버린 것은 아닐까? 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
까지만 기다려보자. 선선한 바람이 불면 또 다른 생각이 나겠지. 지
금은 오로지 낙타처럼 걸어가는 수밖에. **G**

우리동네 일복 터졌어요!

고용복지  센터
플러스

전국 고용복지  센터가
궁금하다면?

www.workplus.go.kr



고용노동부

5천만 모두가 도전자!

정책퀴즈왕 선발전 ★ 상금·경품 총 1억 5천만 원



2016년 9월 3일(토) 오후 5시 첫 방송됩니다



www.ktvquiz.com



KTV 정책퀴즈왕

검색



'해피 트라이앵글'이란?

- 2016년 8월 15일부터 14주간 KTV와 정부 부처간 협업으로 유용한 정부 정책을 매주 3번의 퀴즈 이벤트로 제공하는 국민참여 정책퀴즈 프로그램



퀴즈 방식

- 예심 - 온라인 국민참여 OX 퀴즈로 본선 진출자 6명 선정
- 본선 - 전화우승자 등 총 7명이 1:1대결로 부처별 퀴즈왕 결정
※ 프로그램 방송 시 시청자 참여 퀴즈이벤트 별도 진행



시상내역

- 예심, 시청자 퀴즈 참여자 - 총 8천만 원 상당 경품
- 본선 우승자 - 1승 상금 5백만 원 (14연승시 최고 7천만 원)
- 다승자 1명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시상



참가자격

- 정책이 궁금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국내체류 외국인도 참여 가능



참여문의

- KTV 국민방송 방송제작부 044-204-8214, 8215
- 페이스북,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KTV 정책퀴즈왕' 검색

sky life 161

olleh 64

SK broadband 503

LG U+ 171



KTV 국민방송



문화체육관광부



케이블 채널번호